



10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10호

(루계 372)



◇◇◇◇◇◇◇◇◇◇

차례

◇◇◇◇◇◇◇◇◇◇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
주체의 해돋이	19
소원	20
우리 작가와 작품을 아끼시여	22
우리가 가는곳 그 어디에서나	24
행복도 무르익는 봄날에	25
혁명의 성지에서	26
당원들	27
마지막 버럭	28
다듬은 말	36
수련이	37
소조원이 떠나는 날	44
막장에서 보내는 노래 (외 1 편)	45
인차가 오른다	46
아득한 들 그 어디를 밟아도	47

아름다운 꽃을 피워	48
입당청원서	49
이 문을 나서	50
재일동포들속에 꽃피나는 충성의 시문학	51
교원혁명가의 영예	56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58
주체형의 로동계급의 빛나는 형상	61
생동하고 매혹적인 성격을!	64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78년 9월 9일)

동지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온 세계에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0년동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커다란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자의 높은 영예를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을 뜻깊게 기념합니다.

나는 이 력사적인 명절을 맞이하여 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우리의 영웅적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이국땅에서 공화국의 공민된 높은 민족적공지를 가지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의 독립과 공화국을 위한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에서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잊을수 없는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항일의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이 남긴 공적은 공화국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정부의 대표단들과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나는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러 온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자기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었으며 인민정권건설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마침내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창건

으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주독립국가의 기발을 높이 들고 국제무대에 뚝뚝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적인민의 새로운 출현이었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30 년동안 간고한 투쟁과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명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30 년은 승리와 영광의 30 년이며 창조와 번영의 30 년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 있으며 공화국의 위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장성장화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고있습니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이 융성하고 온 누리에 위용을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공화국은 30 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절대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공화국만이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공민으로 살며 혁명하는것을 끝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땅위에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공화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1.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가진 정권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자

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에 따라 풀어나갔으며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받아들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춤추지 않으며 우리 나라 내부문제에 외부사람이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존엄은 바로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어떠한 세계의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자위적국방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없습니다. 자위력이 없는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도 철저히 짓부실수 있는 필승불패의 국방력을 마련하여 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과 빛나는 성과들은 자주, 자립, 자위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역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속밀에 있던 나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으므로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여기에 더 많은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해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 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입니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깎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으며 혁명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모두다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인민으로 되었습니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생활이 높아져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점차 떨어질수 있습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앙양시킬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혁명의 길위에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3대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기술혁명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것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편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앴으며 나아가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진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다음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위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그 위력이 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생산은 1946년에 비하여 196 배로 늘어났으며 1946년부터 1977년 사이에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1%로부터 33.7%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계설비수요의 98%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습니다.

근로자들이 힘든 노동에서 많이 해방되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업부문들에서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근로자들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노동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식료가

공공업이 발전하여 여성들의 가정일이 훨씬 험해졌습니다. 노동이 험해지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3 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며 앞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있습니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더많은 매장량을 확보하며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곧 기술수단의 현대화이며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을 현대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 최근에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은 빨리 발전하였으나 수송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송의 현대화를 다그쳐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빨리 완성하고 철도를 더욱 자동화하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고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큰 짐배를 많이 무어내고 운하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수상운수를 널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대적인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어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대외무역을 다각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가까운 앞날에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더욱더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과학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다그치며 더 많은 토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3 대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향유자로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단계별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오늘은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자라나는 모든 세대대들이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860 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을 받으며 공산주의혁명인재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성인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을 가지었으며 오늘은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58개의 대학이 일떠서고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러졌으며 100 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간부가 부족하여 것처럼 곤난을 겪던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문맹퇴치사업으로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 오늘은 고등의무교육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업적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오늘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전체 인민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성인교육사업과 고등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세대대들을 모두다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고 빠른 기일안에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지도록 하며 민족간부를 더 잘 키워내야 합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더욱 건전한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옹계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와 양풍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3 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 대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다시말하여 3 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3 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3 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조직화되고 적극화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생활은 3 대혁명소조운동이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 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3 대혁명소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3 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3 대혁명의 전위들이며 투쟁의 기수들입니다. 3 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혁명성을 계속 견지하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3 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까.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며 우리 혁명을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3 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 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3 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하겠습니까.

2.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30 년이 지나도록 우리 민족은 아직 분열된 상태에 있으며 조국통일은 의연히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으며 민족의 영구분열의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미제는 《두개 조선》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도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여러모로 방해하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피괴도당은 민족분렬음모를 공공연히 정책화하고 《유엔동시가입》이요, 《교차승인》이요 하면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를 계속하려하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의 옛지위를 되찾아보려 하고있습니다. 남조선피괴도당은 남북분렬의 현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렬주의자들의 그 어떤 음모책동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며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통일을 바라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외부세력이며 내부세력으로서 오직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자들뿐입니다.

조선문제는 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렬된 나라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지예속밑에서 압박받던 민족이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워서해방을 쟁취한 민족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가 통일된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들에 위협을 주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반대로 조선이 계속 분렬된채로 있으면 그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상시적인 근원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근본리익을 위해서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회담쌍방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옳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화를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렬을 위한 대화를 할수 없으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비렬한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과란되었으며 오늘까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남북간의《대화》니,《합작》이니 하고 떠들지만 실지행동에서는 대결과 분렬으로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산주의기치밑에 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는《남침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반공의식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으며 《승공통일》을 부르짖고있습니다.《반공》과《승공》의 구호를 들고 어떻게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간경제협력안》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승공》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경제협력》을 하겠다

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며 그것은 분렬주의자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서툰 위장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렬정책을 통일 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입니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 제도와 남조선사람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민족대단결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과도 단결을 도모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의 어떤 정당이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활동할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하여 환영할것입니다.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들도 역시 북반부에 있는 여러 정당들과 단결할 용의를 가져야 하며 북반부의 어떤 정당이 남조선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과 남이 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여야 조국통일위업을 빨리 앞당길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습니다. 남조선 피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무권리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와 파쑈악법에 의하여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들쭉위진 부당한 형벌들을 취소하여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혁명당을 비롯하여 지하에 있는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단체들과 애국인사들도 자기의 의사대로 남조선에 돌아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나라에서도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마땅히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은 이처럼 가혹한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도 숭고한 민족적사명감을 지니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모든 민주주의적력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파쑈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을 비롯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우리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피뢰정권이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이 종전의 그릇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팎으로 여지없이 고립되어있는 남조선의 파쑈분자들을 계속 비호한다면 인권탄압의 공모자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먹어보려는 침략적야망을 버려야 하며 유엔의 결의와 자기의 《공약》대로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하루빨리 완전히 철거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바란다면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와 진심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두개 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옳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어느 때든지 미국과 회담을 열고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수 있을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드시 짓부셔버릴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3.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혁명력량이 날로 장성하는데 겁을 먹은 신구지배주의자들은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비축소》의 간판밑에 군비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제한》의 간판밑에 핵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긴장완화》의 간판밑에 군사적간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기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나라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습니다. 뿔럭불가담나라들, 3세계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주요한 수법은 이 나라들을 분열, 리간시켜 각격격파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뿔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사이에 썩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며 분쟁과 충돌을 야기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파괴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른바 《원조》와 《후진국공동개발》의 미명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 있습니다.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을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쟁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원》과 《보호》를 구실로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제가꿈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으려 하고 각축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착잡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조종과 음모에 의하여 매일같이 전복, 파괴, 암살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분쟁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심지어 형제나라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며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3세계나라들앞에는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있으며 뿔럭불가담운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현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입니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입니다. 지배주의에는 공공연히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로골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도 있으며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의 올가미를 씌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비교적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나라에도 있고 그밖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라의 크기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다 지배주의세력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든지, 은폐된 방법으로든지 남을 지배하는것은 다 지배주의입니다.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세계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지배주의자들이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온갖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기 위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크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강합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은 진보적나라이니, 비진보적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는것은 뽀력불가담운동의 본성과 리념에 어긋나는것이며 이것은 결국 뽀력불가담운동안에 새로운 뽀력을 형성하고 뽀력불가담운동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나라의 진보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진보의 표징은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나라가 바로 진보적인 나라입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은 모두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고있는것만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이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습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은 개별적나라들사이에 발생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도 단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며 서로 싸우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적리익과 뽀력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뽀력불가담나라들이 지배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빠져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면 리익불것은 지배주의자들이고 손해불것은 뽀력불가담나라들자신입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

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빨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하수인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지배주의세력도 빨럭불가담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을것입니다.

나라의 자주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이는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빨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다른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연부원, 새생활창조과정에 이룩한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원료와 기술을 교류하여야 하며 특히 민족기술간부를 교류하여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경제기술적락후성에서 벗어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약탈의 공간입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빈궁을 면할수 없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신흥세력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입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의 교활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군비경쟁을 중지시키고 전반적인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군대와 군사기지를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구우에는 아직도 여러 대륙에 식민지가 남아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또 다시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넣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은 세계 모든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신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가 없어질 때 비로소 민족들의 해방은 완전하고 종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 뿔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 * *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공화국을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원천이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 만세!

주체의 해돋이

최기호

비바람 휘몰아쳐
눈보라 휘몰아쳐
수난의 강산에 어둠이 짙어지던 그 세월,
광막한 대지의 한끝
화전의 피창가에 먼동이 비껴무렵

한밤을 지새워
타드는 등잔불심지를 돌구시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대강을
투쟁의 기치로 펼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
어둠이 뒤척이는 수림 저너머
조국의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시여라

구름을 뚫고
저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못별들
세월의 이끼에, 력사의 탁류에 물젖지 않은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전위들의 눈빛이런가
고난을 뚫고 조선혁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체의 대오를 한품에 안으시는듯...

우수수... 락업을 흘날리며
밀림을 스쳐 불어내리는 바람소리
짓밟힌 겨레의 한숨이런가
고달픈 삶을 피나리보집우에 얹고
철로공사판으로, 부두가로, 막장속으로
류량의 길을 헤매여도는 인민의 념원을
기어이 다시 찾을 조국땅우에 펼쳐보시는듯...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붓끝을 달리시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새겨가실제
압제와 굴욕으로 얼어붙었던 강토우에
새 력사의 봄우뢰가 메아리쳐
불멸의 글밭마다
주체의 장엄한 선언으로 일어서고

짓밟혔던 이 나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 참된 삶을 누려갈 그 영광

불멸의 글밭마다에
주체의 찬란한 빛밭로 나래쳤거니

화성의숙의 창가에 어리던 한줄기 불빛
그것은
수령님께서 헤쳐가시는 혁명의 길우에
우리 당의 뿌리가 내려지던
그 장엄한 새 력사의 아침을 안고 타오르지 않았더냐

그것은
이 나라 항일유격대들이
혁명의 준엄한 세기와 년대들에
어둠을 황황 불사르던 우등불로 타올라
새날을 부르는
해방의 해밭로 비껴가지 않았더냐

악착한 자본의 피대줄에 휘감겨 몸부림치던
장알진 주먹들이
지주집 사례긴 밭고랑에 원한을 뿌려가던
허리굽은 토스레웃들이
그 빛밭아래
철쇄를 부신 땅우에서
삶이 만발하는 자주의 봄을 맞았어라

정녕 그 빛밭
주체의 기치로 불타오르며
백두의 첩첩한 산밭을 넘어
자주시대의 새 력사를 알린
혁명의 해돋이
력사의 해돋이

오, 광막한 대지의 한끝
화전의 창가에서 밝아온 그 려명은
위대한 주체의 나라
밝은 해돋이를 안아올렸고
영원히 당을 따라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살
인민의 새세계를 펼치였어라

소원

리성덕

사람은 누구나 소원과 희망이라는것이 있다.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되고싶어하는 유치원철부지들의 소원으로부터 해빛밝은 강의실에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것을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은 물론 새로운 굴뚝기속도를 창조하여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하고싶은 어느 광산 굴진소대원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먼 앞날의것이기도 하고 오늘 래일의것이기도 한 여러가지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있다.

이 소원과 희망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연령과 직업,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소원과 희망은 분명히 다르며 또 다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의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그것은 이런 일을 목격한 때로부터였다.

혁명전적지와 관련한 취재임무를 받고 량강도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 갔을 때였다.

나는 그곳 리일군들로부터 들을만한 이야기가 있을테니 꼭 만나보고 가라는 당부를 받고 오던 길에 한 로인네 집에 들렀다. 이고장에 태줄을 묶은 때로부터 7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다는 로인이였다. 만아들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있는 광산에서 갱장으로 일하는 공훈광부라고 하였다.

로인은 아들과 농장사람들이 간청하다싶이 하여 몇해전부터 농장일을 겨우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무슨 생각으로인지 하루도 쉬지 않고 약초캐러 다니었는데 어떤 때는 며칠씩 산속에 들어가 지낸다고 하였다.

로인네 집은 벽매질을 잘한 아담한 동기와집이였다. 나는 기름이 찰찰 흐르는 알뜰한 로인네 울안에 들어섰다. 살래살래 꼬리를 저으며 뛰어나오던 복슬복슬한 귀여운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보자 놀란듯이 울바자옆에 우뚝 서더니 짖으면 좋을지 반겼으면 좋을지 몰라서 퇴마루에 나앉은 로인과 나를 번갈아보며 킁킁거렸다. 그러자 틀안에 오구구 모여서 모이를 쫓던 닭들이 빨간 벼를 기웃기웃하며 꾸꾸거렸다.

약초를 다듬고있던 로인은 내가 평양에서 온 사람이라는것을 알자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약초향기가 그윽한 퇴마루에 자리를 잡자 로인은 길고질은 희속희속한 눈섭너머로 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이렇게 물었다.

《평양에 사신다니 혹시 우리 수령님을 자주 뵈옵겠구려?》

나는 로인의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예, 그런 영광을 가끔…》

나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한채 로인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성냥을 켜드렸으나 로인은 불을 붙일념을 하지 않고 더더욱 몸가짐을 바로잡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우리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시여 나라일을 돌보시겠지요?》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얼마나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에 대한 생각으로 한가슴을 불태워온 로인이면 이처럼 처음 만난 사람을 붙잡고 절절히 어버이수령님의 안부부터 물어보겠는가?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혁명의 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의 문필가로서 이 로인이 그토록 목마르게 듣고싶어하는 말-인민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으로 되는 그런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느끼였다.

나는 저도모르게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로인의 근엄한 얼굴을 마주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시여 지금도 쉬임이 없이 당과 국가 사업을 돌보시고계시며 얼마전에는 대안과 강서 지구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외국의 대표단들을 매일과 같이 접견하시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는 나의 설명을 듣자 로인은 《그러실테지.》하고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던 로인은 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우리 수령님께서두 좀 쉬시였으면 좋으시련만… 넘려되는 마음은 간절한데 나이 일흔이 되도록 백성된 도리는 못하고있습다.》

로인은 이렇게 허두를 떼며 몇해전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인이 약초캐기를 시작하여 이래째되던 해가을 어느날이였다.

로인은 이처럼 힘든줄도 모르고 험한 산밭을 수없이 넘으며 남몰래 찾고 또 찾던 산삼 여러 뿌리를 한꺼번에 캐내었다. 백년가까이 자란 신령스러운 산삼을 파릿파릿한 돌이끼로 정성들여 싸안고 마을로 돌아오는 로인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뻐다.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받기만 하다가 속절없이 70평생을 다 보내는가 했더니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오던 간절한 소원을 이제야 풀수 있게 되었다는 남모르는 기쁨이었다.

그런데 로인이 집에 들어섰을 때 방안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벌어졌다. 갱장으로 일하는 매타들도 왔고 머느리와 손자도 와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붉은 보자기로 싼 네모반듯한 함이 놓여있고 그속에는 로인이 캔것과 똑같은 산삼 여러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영문을 알수 없어 말 한마디 못하고 서있는 로인을 알아본 아들과 머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아버지!》하고 품에 와락 안기였다.

《글쎄, 무슨 일이였겠소.》 하고 로인은 눈시울을 습벅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하였다.

《경애하는 우리 수령님께서 아들에게 산삼을 보내주시였수다. 그 애의 건강이 나쁘다구말이우. 그 애도 이제 쇠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우리 수령님께 기쁨이 될만한 일이야 뭐 변변히 해놓았겠소. 그저 광석 몇덩이 켜들뿐이었지.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공훈광부의 칭호를 주시고 이번에는 또 몸이 좀 약해졌다고 귀한 약재까지 보내주시였수다.》

로인의 눈언저리가 불깃해지며 젖어올랐다. 쿡다란 손가락으로 아직까지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가치만 만지작거리며 로인은 말을 이었다.

《백성들이 아무리 어버이수령님을 위해드리려한다 한들 인민을 위해주시는 수령님의 그 뜻에야 어찌 따르겠소. 이 늙은것이 백뿌리 천뿌리의 산삼을 캐올린다 해도 다 내게로 돌아오고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이니 어버이수령님을 위해드리려는 백성들의 소원은 언제 가야 이루어지겠소...》

《!!》

나는 커다란 감동을 안고 열차에 올랐다. 달리는 열차의 차창가로는 무르익은 가을들판이 흘러가고 가없는 황금바다가 설레이며 파도쳐오고있었다.

깊은 산골마을에서 한평생을 소문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오는 소박한 한 로인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있는 그 절절한 소원!

한평생을, 아니 대를 이어 보답해도 못다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

어버이수령님의 이 은덕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 인민의 이 소원은 나날이 뜨거워가고...

나는 달리는 차창가에 앉아 깊어지는 생각을 조용히 더듬었다.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배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 이것이 주체조선의 영원한 의지이고 신념이며 천리마조선의 불패의 힘이며 더없이 숭고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이 의지, 이 신념, 이 힘이 있어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찾았고 제국주의침략을 짓부시였으며 제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기에 세기를 두고 가슴속에 묻어온 우리 인민의 모든 소원과 희망은 다 현실로 되었으며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하지만 모든 소원과 희망이 남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질수록 인민의 마음속 한복판에 뜨거운 열망의 뿌리를 내리고 나날이 자라나고 커가는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는데 단 하루라도 편히 쉬여주시것을 바라는 인민의 소원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모든 소원과 희망은 다 헤아려주시면서도 오로지 인민의 이 간절한 소원만은 헤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백두밀림에서 시작하신 인민을 위한 그 길을 하루의 휴식도 없이 반세기기간이나 이어오고 계신다.

나는 다시금 내가 만났던 로인의 가슴뜨거운 말을 되새겨보았다.

《우리 수령님의 은덕은 나날이 커만 가는데 수령님을 위해드리려는 백성들의 소원은 언제 가야 이루어지겠소!》

나는 이 로인의 이름도 모른다. 해방전에는 화전을 뛰지며 머슴살이를 하였고 해방후에는 남들처럼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을 분여받고 협동조합에 남먼저 들었으며 일흔나이가 넘도록 일손을 놓지 않은 로인이라는것밖에는 이 로인에 대하여 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조국땅 한끝, 깊은 산골에서 그 옛날에는 백두산을 우러러, 오늘은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소문없이 살아온 이름도 없는 한 로인의 이 간절한 소원은 곧 우리 인민모두의 념원이며 소원이라는 느낌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외우고 또 외웠다.

아, 조선인민모두의 소원-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작가와 작품을 아끼시여

윤시철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하여 작가생활을 해온 나는 우리 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역사를 더듬어보게 될 때마다 깊은 감회에 잠기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서 우리 인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일떠서던 그 어려운 시기 많은 작가들이 창조와 기적으로 들끓는 공장과 농촌을 찾아 떠났다.

현지로 떠나는 작가들의 결의와 욕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장엄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단순치 않았다.

단마디로 말하여 우리 작가들은 온갖 낡은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태어나는 심각한 사회적변혁속에서 새생활창조의 선구자들인 새 인물, 새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옹계 그려내지 못하고있었다.

현실은 부단히 변화발전되어 천리마의 대진군이 시작되었으나 우리 작가들은 새 인간의 정신적면모를 옹계 그려내지 못하고있었다.

작가들속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학창작의 근본문제를 놓고 논의도 했지만 옹은 방도가 없이 창작의 붓을 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해주시려고 작가들을 부르시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결국 새생활창조의 주인공인 우리 인민이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우리 작가들은 시대앞에서 자기가 서야 할 립장과 자체를 바로 가지게 되었으며 거창한 천리마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에게 문학창작의 옹바른 길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작가들의 생활형편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온갖 뜨거운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작가들의 창작조건과 생활형편을 료해하시고 청사도 짓게 하시고 창작실도 해결하여주시여 글쓰는데 조금도 불편할세라 모든것을 다 마련하여 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이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작가가 되기를 바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신임과 배려는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다.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하게 전진하고 공화국의 위력이 날로 커지는데 따라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문제가 전면에 나선 시기를 생각해도 가슴 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이때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하여온 혁명투쟁을 더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바로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을 몸소 부르시여 혁명적인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적인 작품들을 창작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을 만나시여 실로 많은 시간을 내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옹은 영향을 줄수 있는 소설의 주인공은 투쟁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체현한 참다운 혁명가들이므로 그들의 투쟁을 전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지 못한탓으로 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역사적 구체성과 진실성, 계급적원칙을 잘못 처리하는것과 같은 심각한 결함을 범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함있는 작품을 쓴 작가의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작품을 잘못쓴것은 그 작가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쓴것이 아니고 당의 정책과 로선을 연구하지 않고 혁명적원리를 잘 모르며 또 자신을 혁명화하지 못했기때문에 잘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자애에 넘치는 교시를 주시였다.

이 순간 작가는 자애로운 사랑에 목이 메여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없이 고마우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문학창작사업에 한몸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작가에게 파오를 비판하시기에 앞서 더 큰 고무와 믿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믿음과 신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후 작가를 만나시여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 곧 치료를 받도록 하여주시였고 건강이 회복되면 새 장편소설창작에 착수하라고 격려해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랬으나 철없는 자식이 부모들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도 매양 또 다른 근심을 하게 하는것처럼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심려만을 끼쳐드리는 일이 한두번만이 아니였다.

사상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더욱더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창작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작가와 작품을 하나하나 헤아리시여 작가들을 잘 교양하여 좋은 작품을 쓰도록 해야지 작품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작가들은 다 당이 키워낸 사람들

이니 그들이 쓴 작품을 귀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고 뜨거운 사랑이 담긴 교시를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시간에 우리 작가들이 쓴 미숙한 작품을 읽어주시고 지어는 작품의 구성안까지 보아주시였으며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 부수를 늘가어 출판하도록 분에 넘치는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고층문화주택이 일떠섰을 때에도 작가들을 생각하시여 그 집에 들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건강을 념려하시여 귀중한 보약을 보내주시는것은 어느 한두 작가에게 한한 사실이 아니다.

전선에서 심한 부상을 당한 한 영예군인작가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학습과 생활 연구에 도움이 되라고 텔레비죤수상기까지 보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남반부에 고향을 둔 한 작가에게 70 뿔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훈장까지 수여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작가들의 창작실을 위해 이른날 큰 휴양소마저 통채로 내어주시고 해마다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실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 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혁명문학건설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고있는것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인류의 문학사도 또한 유구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처럼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주시는 그러한 수령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며 창작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행복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나는 작가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작가생활을 더듬어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게 된다.

그것은 너무도 분에 넘친 큰 행복이 가슴가득 차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오르기때문이다.

우리가 가는곳 그 어디에서나

허성훈

정이 들어

헤여지기 아쉬운 마음

찾아들린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김일성 동지-조선》

《김일성 동지-조선》

손에 손 흔들며 불안아줄 때

목이 메여 목이 메어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렸습니다

어느덧 벌써 떠나게 되느냐고

끝내 가려거던

마음이라도 남겨두어 달라고

아프리카의 벚들이 수첩을 내어밀 때

또다시 눈물에 젖어, 눈물에 젖어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렸습니다

오. 소문도 없이 살아온

조선의 평범한 한 공민을

어찌하여 살빛 다른 외국의 벚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반들어주는것입니까

야자수 무성한 발머리에서

손잡고 우리가 들려준

가지가지 이야기, 조선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힘이 솟는 노래와 같다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이 한없이 부럽답니다

자주의 기치밑에

철쇄를 끊은 대륙과 대륙이

하나의 의지로 뭉쳐섰다고,

반제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아성을 무너트리며

온 세상이 한마음 안뜻이 된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사람들

김일성 동지의 품속에서 왔다는

자랑찬 이 한마디가

심장과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나니

자주의 기치밑에

가슴이 뚫고 대륙이 뚫습니다

《김일성 동지-조선》

《김일성 동지-조선》

오, 들먹이는 걱정예

머나먼 대륙의 한끝에서

수령님, 수령님

목청껏 환호로 높이 부르며

눈물로 노래의 굴줄을 이어갑니다

어찌 못다 나눈 이야기가 남아서겠습니까

어찌 깊어진 정에서만이었습니까

대륙과 대양 건너

우리가 가는곳 그 어디에서나

하나의 지향으로 마음이 뚫어

서로서로 팔을 잡고 놓지 못하는것은...

아, 어버이사랑의 품은 한없이 넓어

어데 가나 친형제가 되나니

바래워주는 벚들의 눈물을 보며

멀고먼 이역에서 더 뜨겁게 느낍니다

인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우리 인민이 빛나는것임을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우리 인민이 행복한것임을

행복도 무르익는 봄날에

백의선

어버이수령님

나를 부르신다고,

강냉이모 푸르른 밭에서

그 포전의 분조장을 부르신다고

오랜날을 두고두고

이 가슴 깊은곳에 두고두고

수정샘물같이 간직한 소원-

땅이 꺼지도록 만풍년을 가꾸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그 마음 언젠가도

다를바 없는데

이른봄 들길에서

수령님 부르신다고

아아, 첫새벽 이슬같은

농민의 길이온데

수령님 찬이슬 털어주신 길로

이 농민이 걸어가니...

가을은 아직 멀어

봄삭으로 푸른 들을

금나락 기쁨으로 실어주시려

마을 두렁길 다 걸으신 수령님

분조의 농사일도

잘 도와주고 가자고

포기농사 잘한것을 보니

벌써 만풍년이 보인다고...

찬이슬 찬바람속에

수령님 사랑을 안고 오시여

우리들의 이른봄 농사일을

황금의 가을속에 무르익혀주시여라

예가 어찌 늘 걸던 들길이란말이나?

가난에 울던 머슴군의 오돌막에서

걸음마를 뎌 이 몸,

수령님 걸으신 이 들길을

세상 가장 귀한 길로 걷는다

세상 가장 높은 영광의 길로 걷는다

수수한 들길을

이처럼 사랑으로 넓혀주시고

이른봄 넓은 들을

농민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가을도 행복도

이른봄 들길에서 다 무르익는

이 밝은 날,

꿈이 아닌줄 내 알면서도

꿈속인듯 나는 간다

아, 어버이수령님 웃으시고계신다!

하늘같은 그 품에

나는 아이처럼 울며 안긴다

들과 함께, 몸도 함께, 가을도 함께...

혁명의 성지에서

황승명

천고의 백두밀림에
길이 뻗었구나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투사들이
피를 뿌리며 한걸음 두걸음
총칼의 숲을 헤쳐 나온 그 길을
우리는 차를 타고 가고온다

청봉은 어디바루, 배개봉은 또 어디
차는 달리건만 더딘것만 같아
마음 앞서 달리며
흥에 겨워 떠들썩 노래를 부르다가도
문득, 가슴을 치는 뜨거운 생각...

숙영소의 폭신한 잠자리에 누워서도
나는 잠들지 못한다
눈보라속에 쪽잠도 그림던 투사들이
락엽우에 누웠던 그 자리가 아닌가

끼맞추 권하는 푸짐한 음식과
마시는 우유에조차 목이 메었다
얼음물을 끓여 목을 추기고
머나먼 행군길 고난을 헤쳐가던
투사들의 그 모습, 불굴의 고정신

아, 지나온 나날에 내 무엇을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말을 하며

위훈이라, 자랑이라
가슴을 벌리고 아름차게
꽃다발과 문장을 받아안았던가

길가의 막돌 하나도
피흘려 얻은 혁명의 재부로
조국의 영광을 떨치며
우리모두를 이끌어
가장 값높은 삶과
위훈의 절정으로 불러세우는
혁명의 성지여

화창한 봄날 꽃밭속을 거닐어도
물길속을 헤쳐가던 그날의 걸음새로 가고가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투쟁과 전진은
언제나 변함없을 우리의 자세

그날의 진군나팔소리 내 귀전에 울리누나
진두에 나뭇기던 붉은기가 내 눈에 보이누나

그날의 그 대오와 함께 나는
압록강의 구시물동가에서
내가 기어이 건너야 할
나루배 없는
림진강의 여울물소리를 듣는다

당원들

김휘조

룡문산마루에 해는 불붙어
선전실 창문도 불물이 드는 저녁
당총회에 모인 우리들 숨결은 높다
더 늘어난 새달계획을 앞에 놓고

창을 흔들며가는 석탄화차의 기적소리
그 소리의 메아리를 타고 달리는 마음
멀리 화력타빈이 도는 소리를 듣는가
쇠물이 사뭇치는 소리를 듣는가

탄광이 끓어야 온 나라가 끓는다고
수령님 주신 말씀 가슴에 울려
석탄만 아닌 온 나라의 생산량을
탐부의 뒤통으로 받아안은 이 시각

머리 희숙한 공훈탄부아바이도
위훈 많은 굴뚝기소대의 영웅도
토론의 마디마디
물이 흐르는듯

차디찬 석수 쏟아지는 앞에 서도
사나이 억센 가슴 더 뜨겁기 위해
세상에 탄부란 말이 가장 억세게 들리기 위해
탄차의 흐름 흘러흘러 끝없기 위해

아, 못견디게 언제나 껴안아주고싶은
아이들이 하루에도 몰라보게 자라고
푸르른 하늘 비낀 집집의 창문들이
아침저녁 더 큰 기쁨에 웃고
기계 타고 아득한 별을 가꾸는 처녀들

그 고운 손이 비단결보다 부드럽기 위해...

마디마디 맹세를 담은 당총회
한몸 바칠수는 있어도 맹세는 어길수 없는
그 마음들이 결정서의 글발로
살아뛰는 불길같이 새겨지는 이 자리

거센 숨결을 가진 거인처럼
그 글발 막장마다에서 석탄산을 안아내리라
그 글발 공장들의 위훈을 알리는
신문의 특호활자로 세월을 빛내리니...

아, 구름속에 억만년 봉우리를 묻고
묵묵히 재부를 품은 산악이여 깨어나라
새 7개년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우리
당원의 미더운 손을 들어 결정한다

《...새달계획을 무조건 완수할것이다.》

쏟아질 석탄과 함께, 온 나라 생산량을
수령님 뜻으로
하늘을 떠인 새 철탑들 설레이고
오곡은 주먹같이 익어 땅이 더 무거워질...
황홀한 무지개속에 래일의 행복을
우리는 지금 결정하고있는것이다.

세기를 변혁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당의 당원-
탄부들의 의무로, 탄부들의 권리로

마지막 버럭

한웅빈

1

회의에서 방금 돌아온 광산당비서 장승한에게 혁신쟁의 덕철쟁장이 전화로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새롭게 개조한 버럭적재기를 오늘 시운전한다는 소식이었다.

《한시쯤해서 시운전할가 하오다.》

덕철쟁장은 자량을 늘어놓지 않는 성미였다. 이때도 그는 승한의 묻는 말들에 한마디로 대답해치우고는 잠시 침묵하였다가 은근하게 물었다.

《무척 바쁘시오다, 비서동무?》

비서는 출입문쪽을 바라보고 한숨을 지었다. 여러 쟁들의 실태보고서를 안고온 지도원이 벌써 문가에 서있었다.

《후에 꼭 가보겠소. 저녁에 시운전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요.》

…전화가 끝나자 승한은 실태보고서를 끌어당겼다. 전진쟁, 북쟁, 청년쟁… 어느 쟁에서나 월계획을 벌써 수행했거나 넘쳐했다. 이대로 나가면 월계획을 1.5 배로 넘쳐할수 있을것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채취공업을 주타격방향이라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당중앙위원회 편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그는 문득 손을 멈추었다. 승리쟁에 대한 자료는 뜻밖의 사실을 알고있었다. 월계획을 넘쳐하기는커녕 100 프로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승리쟁은 몇달전까지도 광산에서 앞선 축에 들었었다. 이렇다할 결함도 나타난것이 없었다. 일군들도 믿을수 있었다.

그는 의혹에 싸였다.

(무슨 일이 있었을것인가?)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수 없었다. 일이 안될 때면 씨넅군하는 일군들의 사업조직에서 비과학성, 굴뚝기속도의 저하, 설비의 불비… 등등 일반적인 말뿐이었다.

승한은 승리쟁으로 내려가보기로 결심하였다. 책상우에는 아직 혁신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었다.

(혁신쟁… 승리쟁과 반대의 내용이겠지…)

그는 혁신쟁을 남다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곤하였다. 혁신쟁에는 그의 지나간 시절의 추억들이 곳곳에 깃들어있었다. 그곳에는 또한

설명없이 말 한마디, 짧은 시선 한번으로서도 쓰라림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에 대한 추억을 나눌수 있는 덕철쟁장이 있었다. 덕철은 쟁장들속에서도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승한은 혁신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면 덕철을 두고 은근한 자량과 긍지를 느끼곤한다.

그들은 서로 만나보는 때가 드물었다. 덕철은 회의에 왔다고 끝나기바쁘게 부랴부랴 돌아갔고 승한은 열에 가까운 널려져있는 쟁들, 뒤떨어진 쟁들에 늘쌍 붙잡히곤하였다.

이때도 그는 혁신쟁에 가본지 퍼그나 오래되었다는것을 상기하였다.

(가는 도중에 들러보기로 하자. 몇시간만이라도. 참, 적재기를 시운전한다고 했지…)

혁신쟁에 가면 쟁구를 방탄벽처럼 가리운 높은 버럭산이 첫눈에 띄운다. 혹시 승한에게만 그런지도 모른다. 굴곡 하나 없이 일직선으로 급경사를 내려그은 거대한 삼각주같은 버럭산앞에 설 때면 승한은 번번이 어느 책에선가 본 일이 있는 피라미트를 연상하곤한다. 버럭산은 푸른 이끼가 덮이기 시작하여 더 컴컴해보인다. 거기에는 30여년전 8 월의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마지막 버럭짐을 벗어던지던 때까지의 혁신쟁력사가 깃들어있다.

지금은 그 중력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가 길다란 렬차행렬처럼 가로건너갔다.

두번째로 승한의 눈에 띈것은 길옆에 담장을 이룬 속보행렬속에 우뚝 서있는 기세등등한 대형속보였다.

1 시현재 굴뚝기 제 2 소대에서

버럭처리작업 완전히 기계화!

새 적재기 완전 성공!!

팔뚝같은 감탄부호들속에서 새 적재기를 지켜보다가 입귀로 썩긋 웃는 쟁장과 우쭐해서 주위를 둘러보는 굴뚝기소대 선동원 정걸의 얼굴이 보이는것 같았다. 승한은 속보를 다시한번 읽어보며 빙그레 웃었다. 혁신쟁은 언제나 자랑거리로 가지고있다!…

《비서동지 아닙니까. … 안녕하십니까?》

혁신쟁 진료소장이었다. 말투는 반가와하는지 시답잖아하는지 통 알수 없이 느릿느릿하였다. 언제보나 느릿한 말투와 늘어진 거동으로 유포하

게논에 띄는 소장이었다. 성미처럼 몸도 둥글둥글하고 나이도 40 고개를 넘어섰다. 그가 서둘거나 뒤는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직 없다. 하기는 그 몸으로 뛰거나 덤벼치면 도리어 만화처럼 우스울것이다.

《왕진가는 길이요 ? 》

《예, 주택지구에 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승리경에 가던 길에 들렸소. 그래 어떻게? 요즘 일이 잘되요?》

《예- 그런데-》

소장은 비서의 기분이 좋음을 알아차린듯하였다. 짐짓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능청을 부렸다.

《야단났습니다. 진료소문을 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입원실이고 진찰실이고 너무 한적해져서…》

《저런! 정말 그렇다면 진짜 야단이요.》

두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소장은 비서가 자기 말을 잘 이해하여주는데 더욱 흐뭇해했다.

《요즘 갱장동무 건강은 어떻게?》

《만나본지도 아득합니다. 진료소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걸요.》

《오늘 적재기시운전하는걸 봤겠구만.》

《예? 오늘 시운전했다구요?》

《? …》

소장은 어처구니없어하는 승한의 어깨너머에서 그제야 대형속보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아니?! 아침까지만도 정결동문 며칠 더 걸려알거라던데요? 버럭처리가 아직 완전치 못하다면서…》

그는 시운전을 확인하는 속보를 다시 보고는 얼굴을 붉히며 웅얼거렸다.

《며칠후라더니… 혹시 갱장동무가 뉘다 몰아시운전을 해치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갱장동무가?… 채 안된것을? …》

《글쎄말입니다.》

《그사이에 완전히 해결했을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승한은 갱구로 향하였다. 버럭산우에서 운모 조각들이 불꽃처럼 빨갭게 반짝거린다. 저녁이 되어오고있었다.

2

《아까 시운전결과를 알려려니까 벌써 떠났다고 하더군요. 시운전이 정말 불만했소다.》하고 덕철 갱장은 입귀로 씩긋거리며 웃었다. 옛날에 그는 앞이 두대를 잃었다. 그때부터 웃을 때면 입을

벌리지 않고 입귀만 쭈긋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있다.

꽃송이와 테프가 아직 여기저기에 그냥 걸려있는 적재기는 한창 버력을 담아내고있었다. 적재반경이 커서 사람이 버력을 밀어주지 않아도 막장이 행해지도록 퍼담았다. 적재기 지나간 자리는 도로처럼 번번하였다. 량측벽에 채 못담은 버력이 한줄기씩 남아있을뿐이다.

운반공들이 그 버력을 어랭이로 광차로 담고있었다. 두 세광차나 될가, 하기는 비자루끝에도 먼지가 있는데 막장에 그만한 버력은 보통이랄수 있었다.

언제나 분주한 덕철은 시계를 보며 서둘렀다.

《채광장에 가보지 않겠소다?》

《먼저 가보오. 적재기구경을 좀 더하고 가겠소.》

요란한 적재기소리, 굴러가는 광차의 바퀴소리.

승한은 호기심을 가지고 적재기를 몇바퀴 돌며 이리저리 들여다보았다. 운전공은 뽀내기라도 하듯이 적재기를 멋부려가며 운전하였다. 그러나 적재기뒤에는 여전히 어수선했던 버력이 남군한다.

승한은 버력 담은 굴뚝기공들속에 끼여들었다.

버력 굵는 소리, 적재기소리, 씨근거리는 숨소리… 툭-하고 땀방울이 어랭이에 떨어진다.

(벌써 땀이? 이만한 일에…)

그는 슬며시 옆의 사람들을 훑쳐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툭- 툭- 이것은 천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것이다. 그러나 승한에게는 운반공들의 땀방울이 모여 자기앞에 떨어지는것처럼 느껴졌다.

(땀을 흘리는 기계화… 완전기계화… 이것을 모두 처리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가, 안했을리는 없는데. … 참 아까 진료소장이 뒤흔더라…)

정결이가 불쑥 머리를 들고 소리쳤다.

《여- 적재기! 이 모양으로밖엔 못담겠어?》

운전공은 통명스레 내뱉었다.

《그건 적재기에게 물어보게.》

승한은 허리를 폈다.

《적재기가 하는 대답을 내가 말하지. <그런것나를 만든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정결이와 운전공 그리고 자기자신들을 두고 껄껄 웃었다. 그들자신이 적재기제작자였다. 정결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게면쩍게 웃었다. 적재기는 마치도 《그럼 그럼 그럼 흥!》 하듯이 요란스럽게 투덜거렸다.

휴식시간이 되었다.

승한은 어랭이를 말안장처럼 타고앉은 정결에 게물었다.

《정결동문 적재기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야?》

《아닙니다. 건 그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종전에 비하면야 밥맛이나 있을 정도지요. 굴뚝기속도가 한배반은 높아질겁니다.》

《한배반...》

플랑- 소리내며 물방울이 장화에 떨어져 부스러진다. 천반은 술한 물방울로 번쩍거린다. 땀에 젖은것 같다.

정결은 수첩을 꺼내들고 속보원고를 쓰는지 부지런히 끄적거렸다. 그가 마지막 감탄부호를 힘있게 내려긋기를 기다려 승한은 입을 열었다.

《저 밖에 있는 대형속보를 보니까 버럭처리를 완전히 기계화했다고 썼는데... 그것도 동무가 썼을테지, 정결동무?》

누구나 이 말이 기동성있는 속보공작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정결은 적재기를 결눈질로 보며 어름어름하였다.

《예, 아까...》

적재기의 종이꽃과 오색테프는 돌가루가 한벌 덮여 시들고 퇴색한것처럼 보였다. 그는 우울해졌다.

《비서동지, 말씀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생각되는게 좀 있소. 우리가 완전한 기계화라고 할 때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종합적기계화를 말하는것이요. 동무들이 굴뚝기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기계화뒤에 동무들의 땀방울이 떨어저서는 안될게 아니요?》

모두들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 나머지 버럭이 많지는 않소. 그러나 래일은 오늘보다 더 많아질것이요. 버럭데미란 그냥 두면 커지기 마련이니말이요.》

굴뚝기공들은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비서의 말에 건적으로 동의하였다. 누군가는 지금 갱입구에있는 언덕반이가 처음에는 한광차의 버럭이었다고 하였고 또 누군가는 며칠 품을 들여 운반전로를 정리한 일을 실례로 들었다. 정결은 비서의 다음말을 들으려고 초조해하였다.

《셋! 조용하랴요.》

모두들 조용해졌을 때 승한은 말대신 바닥에 적재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나도 좀 생각해봤소. 내가 적재기에 전혀 문명자가 아니라는건 보증할수 있지. 정결동무?》

《옛! 비서동지야 대학통신생이 아닙니까!》

모두 유쾌해졌다. 누군가 비서에게 격쇠를 내밀었다. 돌바닥에는 적당한 《연필》이었다. 굴뚝

기공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비서가 모르는 일이 무엇일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착암기앞에 서면 착암공이였고 동발공들속에 끼워도 경험있는 기술자였다. 얼마전에는 새로 온 종합채광기에 대한 몇마디 담화로써 기계기사를 놀라게 하였었다.

《비서동진 언제 채광기를 배웠습니까?》

비서는 도리어 놀랐다.

《아니, 난 배운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승한은 광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뿐이었다.

그는 대단한 기대속에서 적재기외형을 그렸고 적재압과 주행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이 부분을- 더 보강하면 될것 같소.》

이것은 아무런 발견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치한 그림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음을 승한은 알고있었다. 자전거 비슷해진 그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정결이가 불쑥 물었다.

《오늘밤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비서동지?》

계획대로 하려면 이제 곧 승리갱으로 떠나야 했다. 이 토론이 끝나면 떠날 작정이였다. 그런데 정결의 물음은 웬일인지 그에게 몇달전에 배낭에 한살림 잘 차려넣고 왔다가 연신 전화가 걸려오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이틀도 채 못있었던 일을 회상시켰다. 정결이 역시 그 일을 기억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비서가 승리갱으로 가는 길임을 모르고있다.

(우에 올라가서는 며칠씩 있는 때가 드문한데 왜 갱에 내려와서는 이틀도 채 못있었는가... 작업복을 입고 간데라를 든다고 하여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는것이 아니다...)

그는 대답을 그다리는 정결의 어깨를 짚었다.

《정결동무 생각엔 어떻게 하는게 옳을것 같소?》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정결은 당황하여 허둥거려댔다.

(이상한 일인걸. 사람들은 대체로 당비서라하면 아무 결함도 없는 원만한 인간으로 여기거던. 지내 내가 자신의 결함을 매시각 발견하고있고 망설이고있다고 말하면 이들은 믿지 않을테지... 어떻게 할것인가,... 떠나야지, 떠나야지.)

굴뚝기공들은 단순한 선 몇개로 이루어진 그림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당비서가 제기했다는 거기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룡담으로 스치는듯한 그의 한마디 한마디조차 무심한것

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그는 그들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는 당조직의 책임자였다. 모두들 주의를 집중하여 들여다보았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동그라미속에 흠을 만들었다.

문득 정결이가 중얼거렸다.

《우리도 생각해본적이 있는데 갱장동지가... 기사동무들도 그렇고...》

그는 자신없이 말꼬리를 흐려버렸다.

승한은 놀랐다.

(갱장? 덕철이가?...)

그는 이때에야 진로소장의 말이 근거있는것임을 깨달았다.

(덕철이가 반대한다? 그럴수가 있는가?)

그는 굴뚝기공들을 안심시켰다.

《갱장동무가 왜 반대하겠소? 동무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게 되면 그렇지 않을게요. 일이 바쁘다 보니 관심을 못돌릴수도 있지.》

말과는 반대로 승한은 발밑을 내려다보며 적재기그림이 혁신갱의 인간관계를 편상시키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3

적재삼과 주행부분에 자전거바퀴처럼 나란히 고여진 두개의 동그라미, 하나는 갱장이오 다른 하나는 기사들이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두개의 동그라미에 있다. 정결이가 오늘밤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은것도 그때문이었다. 정결은 비서가 그 동그라미를 풀어주고 떠나기를 바란것이였다. 그들은 서로의 속생각을 몰랐다. 제나름으로들 묻고 자책을 느끼고 당황해하였다.

승한은 채광장으로 향하였다.

굴뚝기공들은 갱장의 견해를 부정적으로 예견하고있다. 정결은 확인하다싶이 하였다. 그렇다면 갱장이 그 언제 기술혁신을 반대한적이 있었더라 말인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번 적재기개조에 서도 기사들과 함께 팔을 걷고 뛰어나섰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는 무언가 선뜻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것이 있다. 정결은 왜 자신없이 말했을까? ... 투쟁하기에는 불충분한 문제...그런 문제도 있을가... 갱장과 기사들...)

그는 자기 머리속에서 두개의 동그라미가 점점 자라나며 원인이였던 나머지 버력을 차츰차츰 밀어내고있음을 느꼈다.

채광장에서 승한은 갱장대신 기사들을 만났다.

덕철은 벌써 한바탕 작업조직을 휘둘러놓고 다른 작업장으로 가버린것이였다.

기사들은 채광기옆에 서있었다.

《아이, 비서동지!》

《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말이 다른것처럼 한 기사는 녀자였고 다른 한 기사는 남자였다. 그들은 부부간이기도 하였다. 팡부들은 흔히 그들을 《부부기사》라고 불렀다.

승한은 기계기사와 손을 먼저 잡았다.

《축하하오. 적재기를 개조하느라고 힘들었다지? 다 들었소. 정말 수고했소.》

《아이참, 저희들이야 무슨 수고한게 있습니까? 갱장동지랑 굴뚝기공동무들이 수고했지요.》

수집계 손을 잡으며 칭찬을 사양하는 녀기사에게 승한은 전혀 의외의 말을 말을 물었다.

《장판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면서?》

《예?》

녀기사는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기만 한다.

《몽땅 발라치웠소?》

《어마나!》

녀기사는 급기야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갱게 되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비서동지까지도 그 일을 압니까?》

그 일이란 얼마전에 비둘기집같은 그들의 조그만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선 그들은 제정되어있는 질서대로 녀기사는 저녁밥을 시작하였고 남편은 선심을 쓴다는듯한 얼굴로 방걸레를 쳤다! 남편이 사내애들처럼 코소리를 내며 방안을 네발걸음으로 열심히 기여다닐 때 녀기사는 새 반찬거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상점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그의 지시대로 밥가마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레질을 하였다. 그런데 장판지 네귀마다에 있는 해바라기모양의 덧붙임종이가 손을 멈춰세웠다. 그놈은 치차바퀴를 편상시켰다. 그는 개조중인 적재기의 동력전달장치를 치차로 하면 어떻게 하고 궁리해보았다. 매혹적인데가 있었다. 잠시후에는 장판우의 환상적인 치차들속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밥가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변화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다. ...말에 의하면 그날 저녁은 마을전체가 밥을 태우는듯 했다고 한다. 밥술이 솟가마처럼 된 원인을 알게 된 녀기사는 장판을 다시 해야겠다고 선언하였다...

가정의 두터운 담벽안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시시콜콜한 세부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나 승한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들은 비서에게는 그 어떤 일도 숨길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걱정스럽기도 유쾌하기도 하였다.

《아직 적재기에 결함이 많지요, 비서동지?》

승한을 기계전문가로 인정하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겸손한 립장에서 한번 해보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자꾸 칭찬하면 거북합니다.)하고 말하고있었다.

《적재기는 잘 개조했소. 크기도 굴뚝기막장에 알맞고 능률도 높고 마음에 드오. 그런데...》

두 기사는 불안한 눈으로 다음말을 기다렸다.

《적재기가 아직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는것 같소. 적재기뒤에 버력이 남더구만?》

기사들은 의아쩍어했다.

《그거야 얼마 됩니까? 종전에 비하면야...》

승한은 벌써 종전이라는 말을 두번째 듣는다. 혁신갱의 습관적인 말투가 아닐가. 언제 어떻게 되어 생겨났는지 알수 없는 말이었다.

《종전에 비하지 말고 오늘의 요구에 대비해 보오. 그 얼마 안되는 버력때문에 굴뚝기공들은 여전히 땀을 씻지 못하고있소. 개조할바에야 오늘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개조해야지 않겠소?》

《.....》

《그곳에서는 벌써 토론을 하고있소.》

《예?》

두 기사는 묵묵히 서있었다. 잠시후 굴진기사가 물었다.

《갱장동무는 지금도 거기 있는가요?》

《갱장동무는... 없었소.》

기사들의 안색이 저으기 풀리는것 같았다. 승한은 반대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다시 갱장... 여기에는 막장과 반대로 안도감을 주는 덕철이가 있다. 이상한 일이다. 덕철에게는 분명히 포착하기 어렵고 반발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다. 혹시나 내가 알고도 생산능률에 만족하여 간파해온것이 아닐가...)

물기를 머금은 암반이 간데라불빛에 암갈색으로 번들거린다.

승한은 마침내 혁신갱에 하루 더 머물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한두광차의 버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버력은 막장에만이 아니라 덕철의 머리속에도 있는것 같다. 그리고 혁신갱의 일부 다른 일꾼들에게도... 아직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소한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로 지나치는것은 기다려라 아직 문제를 세울만큼 크지 않았으니! 하는 식이 아니겠는가.》

그는 갱장을 찾아 밖으로 나왔다.

이미 깊은 밤이었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구름들사이로 둥그런 달이 느릿느릿 헤엄치고있었다.

승한은 무릎이 또 저릿저릿해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달주위로 어두운 무지개같은 무리가 커다랗게 에웠다. 머칠안으로 비가 올 모양이다. 습도계와도 같은 이 증상은 먼 옛날에 굴간을 무릎걸음으로 기어다닌 후과였다. 최근에 나이와 함께 그 증상이 또 나타났다.

《음-》

그는 이마를 찌프렸다....

길다란 갱지휘부건물은 캄캄하였고 종합사무실에서만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창문에 덕철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출입문앞에 갔을 때 덕철의 한숨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네들 젊은이들이란- 참.》

(누구와 말하나?)

승한은 문을 밀었다. 예상외에 방안에는 정결이와 기사들까지 하여 네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야길 마저 하오. 난 바쁘지 않으니까.》

그는 창문옆 결상에 앉아 습관적으로 벽시계를 자기 손목시계를 맞춰보았다.

창밖으로는 뽀얀 달빛이 안개처럼 밤을 가득 채웠다. 손을 내밀면 엷은 천처럼 휘감길듯싶었다.

갱장은 정결에게 창밖을 가리켜보인다.

《저 버력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네들은 정 모를걸세. <왜놈때에 생겼지>하는 정도겠지.》

(그런 이야기였군, 해야지. 알려주어야지.)

하고 되뇌여보는 승한의 생각은 갱장의 말을 앞지르며 지난날에로 찾아갔다.

버력산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더 높고 날카로와진것 같았다. 그 꼭대기에 왜놈때의 마지막 버력조각이 던져진 때로부터도 30 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승한과 덕철의 세대는 그 산을 볼 때마다 자기들의 청춘시절을 회상하군한다.

...그것이 무슨 청춘시절이었으랴. 위훈에 대한 갈망도 행복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좁고 낮은 굴길을 헤쳐가는 네발걸음, 입에 문 간데라의 희미한 불빛, 이것이 전부였다. 조금이라도 높아주었으면, 허리를 펼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 아닌 소원조차 가질수 없었던 청춘시절, 그들의 청춘시절은 수십년 지난 오늘에도 나무 한그루 없는 메마르고 스산한 버력산에 묻혀버렸다.

《내가 왜 이렇게 웃는것도 입만 썩긋대는 버릇이 생겼는지 아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지.》

덕철의 이발 부러진 그날의 특별히 기억에 남은 날은 아니었다. 그때로 치면 평범한, 억울한 정도로 정상적인 하루였을뿐이었다. 몇살 때였던지 기억도 못한다.

그날, 승한과 덕철은 무거운 질통을 지고 함께 기어나오고있었다. 누가 앞에 섰던지, 덕철이였던지... 그렇다. 덕철이었다. 입에 문 간데라는 턱과 가슴을 때렸고 어깨와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다.

고통과 피로,... 아니, 그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절망의 밑바닥에는 고통도 피로도 없었다. 끝없는 어둠뿐이었다.

《야로!》(자식)

밖에서는 왜놈감독이 악을 썼다.

《게쁘니-네가 하엿다까!》(엄치에 뿌리내렸는가.)

그놈은 덕철의 입에 문 간데라를 고삐처럼 꺾 잡아당겼다.

신음소리도 없이 묵묵히 부러진 이발과 함께 피덩어리를 뺄 때 가슴에서는 웅어리진 피눈물이 흘렀다.... 그렇다. 그것은 정상적인 하루였다. 기억에서조차 삭막해져버린 평범한 하루였다!...

대기는 뽕얀 달빛으로 흐릿하다. 승한은 무의식중에 창유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던가, 언제 어느때에...

동해에 솟는 해를
비로봉에 걸어놓고

전차선을 올려다보며 전차공처녀가 재간스레
플라디디며 깡충깡충 뛰어간다.

서해의 지는 달을
몽금포에 세워놓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세대들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위훈과 사랑의 시대, 공상이 곧 현실로 되고 행복이 레상사로 되어 자기가 딛고 사는 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 오늘이 어떤 지난날을 거쳐왔는가를, 10년... 20년... 먼먼후일에 살게 될 세대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가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리를 때면 저절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충성의 맹세를 후대들에게까지 물려줄수 있을것이다. ...흰구름 떠가는 푸른 하늘아래 교묘하고 꽃피는 들판, 가로등이 가로수 푸른 잎속에서 신비스런 열매처럼

백광을 뿌리는 평화로운 거리를 걸을 때에도 안일을 모르고 평안무사한 생활을 그리는 목가적인 꿈속에 잠기지 않게 될것이다!...)

버럭산은 잠든것 같기도 하고 달밤의 부드러운 하늘밑에서 자기의 지난날을 더듬어보는것 같기도 하다.

죽어서도 몇시 땅조각을 얻지 못해 마구리에 묻힌채 저세상에 가야 했던 광부들의 뼈도 그속에 묻혔다.

울어야 할 무덤이 없어 버럭산에 대고 제사지낸 아낙네들은 그 열마였던가. 하도 많은 원한과 눈물이 숨배여있어 아직도 나무 한그루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버럭산, 그것은 최근 세상에 등장하는 현대판 노예들이 원시적로동으로 쌓아올린 죽음과 굶주림, 절망과 눈물의 《피라미트》였다!...

덕철은 말을 끝냈다. 승한은 자기 자신이 이제껏 이야기한것 같았다. 이제는 정결이나 기사들이 말할 차례였다. 정결은 자리를 고쳐앉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은 뜻밖에도 감동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갱장동지,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버럭처리작업도 더 깨끗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한은 놀람과 의혹으로 갱장을 건너다보았다. 지난날의 이야기는 그때문이었던가. 그는 정결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지난날에 비추어 오늘은 이만해도 과분하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그때를 잊는것과 같은...》

《뭐라구?》

덕철의 입가에서 주름살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 옛날, 덕철의 무릎에서 피가 흐를 때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 함지와 바가지로 전쟁시기에 침수된 갯의 물을 풀 때에는 탁아소문턱도 못넘고있었던 세대가 어제날에 대한 덕철의 견해를 부정해나섰다.

승한은 처음으로 놀랐고 다음은 대견스러웠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지난날이 오늘을 위안하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만족을 느끼려는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늘을 더 좋고 값높게 하고 래일을 더 빨리 당겨오는데 복무해야 할게요.》

《!》

덕철은 장승같이 우뚝 서서 승한을 노려보고있었다. 그 자세에는 뜻밖에도 정결을 도와 일어난 승한에 대한 놀람과 의혹, 실망과 피로움, 분노, 이 모든것이 죄다 깃들어있는듯하였다. 단지 자책만은 없었다.

(덕철이, 자넨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러면 당비서인... 나는 그사이 무엇을 하였는가. 어데 있었는가. 믿기만 하고 잘된다고 기뻐만 하는 사이에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벽시계는 놀랄만큼 선명해진 초침소리로 침묵의 깊이를 헤아리는듯 초조하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재깅거려댔다.

《중네. 그렇다고 하세.》

덕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대신 억눌린듯 갈려있었다.

《그 몇여랭이의 버력에, 그 개조안에 50 프로, 아니, 단 5 프로의 생산능률이라도 실어놓고 제기하려면 하라고 하계. 두손을 들어 환영할테니! 누가 천마디를 하건 백마디를 하건 나는 한가지만 믿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제구실을 하려면 쇠돌을 열배 스무배로 광광 캐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방안은 조용하다. 이는 덕철에게 공명하는 침묵이다. 이때문에 그들은 갱장을 존경하고 사랑할것이다. 승한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창밖에서 기다리고있던 축축하고 신선한 밤공기가 호기심 많은 어린애들처럼 방안으로 물려들었다.

덕철은 창문에서 물려나 불편하게 발을 끌며 책상에 가앉았다.

《또 비가 오겠군. 날씨도 빌어먹을!》

승한은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거슬렸다. 그도 역시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진료소장의 만족해하던 얼굴이 지긋게 따라온다.

(진료소... 진료소가 한가하다구? 죄다 이 모양이지, 그대로 두면 허공만 쳐다보며 만세를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책상우에 있는 담배를 껍채로 껍 끌어당기었다. 담배꽂에서는 용광로를 배경으로 커다란 쇠물바가지가 빨간 쇠물을 《용광로》라는 글자우에 끊임없이 쏟아붓고있었다. 그림을 보느라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담배를 갱장앞으로 밀어놓았다.

《동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이걸 볼 때면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생각하군하오. 그곳에 견학갔던 일도 생각나고... 그때 강철직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서는 생산지휘를 텔레비존앞에서 무선전화기로 하고있었소. 왜 무선전화기로 하는가고 물었더니 글썽 전화통을 들고 지휘하던 지령원들이 목이 쉬기때문이라질 않겠소? 우리 생각엔 좀 이상하지 않소? 목이 쉬는게 무슨 큰일이겠소?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는데말이요.》

이것은 이미 책에서도 읽었고 독보도 여러번한 실화여서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있었다. 그러

나 비서는 누구도 모르는 사연을 이야기하는듯하였다. 덕철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집었으나 왜 집었던지 잊어버린듯 쇠물바가지만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귀중히 여기시고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고계시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이제 만일 언제이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버력처리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했다는 보고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그때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부터 만나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저 나머지 버력때문에 깨끗치 못한 손을, 땀과 버력에 젖은 손을 내놓겠소? 우리 광부들을 그토록 아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앞에!...》

《.....》

...단조롭게 재깅대던 벽시계가 돌연 쓰르륵거리더니 방안의 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땡땡 소리를 터뜨려놓았다.

갱장과 기사들은 잠에서라도 깬듯 머리를 들었으나 불시에 쾅쾅하게 흘러든 노래소리에 도로 침묵해버렸다. 전차공처너가 선검열을 마치고 돌아오고있었다.

세폭의 붉은 기발

펼 펼 휘날리네

.....

5

하루 또 하루가 지났다.

그날 아침에는 갱장의 예견대로 비가 내렸다.

비발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주행부분이고... 적재삼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부분을 기본으로 개조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주의깊은 시선들이 지켜보는 도면의 주행부와 적재삼에 기계기사는 손으로 두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였다. 그리고는 의견을 기다렸다.

그러나 비서도 갱장도 말이 없었다.

기사는 도면만 만지작거렸다. 도면은 사실 아직 부족한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버력들에 얼룩져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두사람이 묵묵히 있던것은 그때문이 아니었다.

덕철은 자그마한 버력때문에 생겨난 일들과 비서에게서 들은 가슴아픈 말을 회상하고있었다.

《...자네는 보통광부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으로 갱과 수백명의 광부들을 책임진 지휘관일세.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돌

리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있는다면, 기계에서 프로수만 본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지휘관이라고 말할수 있겠나?》

몇광차의 나머지 버럭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승환은 그것이 몇십광차나 되는 버럭인듯 온굴뚝기막장을, 갱을 일떠세워놓았다. 어데 가나 들리 비서는 점과 선들이 복잡하게 엉킨 도면을 보며 막장의 바닥에 있던 자전거비슷한 그림이 이 도면에 이르기까지 걸어왔을 행로를 그려보고있었다.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남아 있는 불철저성의 버럭을 쓸어버리는 행로라고 할수 있었다. 이 행로는 계속되어야 한다.

(나머지 버럭에 숨어있는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였다.

(알기 시작하였다!)

그는 도면을 얼룩지게 만든 수심의 버럭 묻은 손자리를 갱장에게 가리켰다.

《이걸 보게. 도면이 굉장하질 않나?》

도면가운데까지 누군가의 성급한 손자욱이 커다랗게 찍혔다.

《이제는 막장에서보다 먼저 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불철저성의 버럭이 없어지게 될게 아닌가?》

《…………》

덕철은 도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머리속에서 썩이기 시작한 버럭, 막장에 나머지 버럭이 작다고 만족할 때 제 머리속에서 커지는 버럭은 몰랐었다. 하루 또 하루 그대로 지났더라면… 갱입구의 언덕처럼 치우기 어렵게 머리속에 자라났을것이다.

이때야 덕철은 비서가 승리적으로 가는 길을 미루기까지 한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가 자기 손자욱도 남기려는듯 도면을 짚으며 말을 꺼내려 할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갱진료소장이였다. 그는 어쭈게 방안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 저… 갱장동무를 좀 만나려고…》

《나를?》

비서는 그의 등을 밀었다.

《저쪽방에 가서 만나보게. 어서.》

이웃방으로 넘어오자 소장은 어쭈은 태도가 없어지고 도리어 주인처럼 덕철에게 결상을 권하였다.

느니 《나머지 버럭, 나머지 버럭》하는 소리들이다. 덕철은 나머지 버럭이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시간마다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자신을 발견하군한다. 이사한 변화였다.

그는 도면에서 그 대답을 찾을듯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오. 난 바쁘오.》

《글쎄 앉으십시오.》

덕철은 결상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요?》

소장은 그의 앞결상에 마주앉았다.

《갱장동무가 편찮다기에…》

《내가?》

《우리 잘못입니다. 찾아오기만 기다렸지요. 갱장동무에게부터 사죄합니다.》

덕철은 결상에서 일어났다.

《식은 소린 그만하고 용무나 빨리 말하오. 난 지금 제일 바쁜 시간이요.》

창밖에서는 위생가방을 멘 갱진료소 간호원이 갱내에 또다시 설치할 자외선등을 우산으로 가리고 서서 초조하게 두리번거리고있었다. 소장을 찾는것 같았다.

《…비판은 다 접수합니다. 어서 무릎이나 뽐시다. 날씨가 궂힐 때면 저러나군하지요?》

《응?》

덕철은 여직껏 아프다는 소리를 입밖에 내본적이 없었다.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동지가 말해주어서 알았습니다.》

《비서동무가?》

《내 의사라는게. 참 한심하지요.》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개탄하던 소장은 갑자기 후닥닥 일어났다. 덤벼치며 창문을 열어젖혔다. 소장을 찾지 못한 간호원이 자외선등을 복도에 끌어들이고있었다.

《아-아-! 그건 왜 거게 꺼들이오? 그건 저기 갱에. 가만있소. 내가, 내가 나가겠소!》

소장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왔던지 잊어버린듯 달려나가버렸다.

덕철은 얼떨떨해졌다. 소장이 덤벼치는 희한한 거동을 그는 처음으로 보았다. 소장은 환자만 앞에 있으면 전화가 왔든 누가 찾아왔든 관계치 않는 사람이였다. 마치 환자의 하소연과 청진기를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귀만 있는것 같았다. 그를 뛰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 소장이 지금은 발밑에서 불이라도 이는것처럼 달려다닌다. 하기는 이곳에서는 뛰지 않는것이

도리어 이상할것이다. 쿵쿵하는 발파소리가 먼 우뢰소리처럼 들려오고 그때마다 땅바닥이 부르르 떠는듯하다. 입구에서는 인차를 기다리는 광부들에게 고동대가 취주악을 울려대고 확성기소리가 산봉우리에 부딪치고 버럭산에 메아리쳐 찰랑찰랑 울린다. 모든것이 움직이고있다. 그래서인지 아낙네들처럼 어기적거리며 달려가는 소장의 모습도 어색해보이지 않았다. ...

승한은 비옷을 입었다. 덕철은 무뚝뚝하게 물었다.

《우산도 가지겠나?》

《아니 괜찮네.》

말은 이렇게 하였으나 눈으로는 다른 말을 주고받았다.

(마음이 안놓이나?)

(아니, 믿네.)

그들은 마당에 나왔다. 비는 조용한 소리를 내며 내리고있었다. 돌가루와 발파가스에 뿌영던 출입구 떡갈나무잎사귀는 갓 피어난듯 암록색으

로 싱싱해졌다. 레루길도 전차선도 갱지휘부 지붕이 비에 씻겨 번들거린다.

《시운전은 언제쯤 하겠나?》

《인차 하겠네.》

《꼭 알리게.》

《알리지.》

승한은 얼마 걸다가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손저어보이고는 비옷의 고깔을 올렸다. 그러자 비소리는 갑자기 소란해졌다.

(혁신갱에 머무른것이 옳았다. 지금 우리 산에 과연 눈에 성큼 띄울만큼 큰 버럭더미들이 있을 것인가. ... 그것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사소해보이는것, 우습게까지도 보이는 결함이 마지막 버력으로 남아있다.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 마지막 버력을 쓸어버리고 사회를 리상이 맑고 깨끗하게 주체의 요구대로 완성해나가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적은것이라도 이 마지막 버력에 양보하여서는 안된다! ...)

그는 걸음을 더욱 빨리하였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말

가게

닭

가로수

거리나무

가마니직조기

가마니를

가설하다

놓다, 늘이다

가제

약천

가열

덥히기, 열주기,

달구기

달굼상태

가열상태

달굼온도

가열온도

더욱, 더욱더, 더한층

가열층

옮겨지음

각색

여러곳, 곳곳,

각처

여러군데

간경화증

간굼음중

간단없이

끊임없이, 질세없이,

그칠새없이

간색

사이색

간작

사이그루

본래말

다듬은말

간혹

어찌다가, 때로, 더러

간혹작

섞음사이그루

감도

느낌도

감시구

볼구멍

감시구멍

볼구멍

감퇴하다

줄어들다

감하다

낮추다, 덜다, 빼다,

줄이다

강우

비, 비내림

거답제

가래약

거수하다

손들다

건과

마른열매

건과자

마른과자

건당추

마른고추

건립하다

세우다

수련이

류정옥

(오빠의 얼굴이 확실히 어두워졌어. 그때부터 ...)

수련은 가방쇠를 따고낸 구멍철판들을 정리하면서 오빠를 생각하였다.

오빠 금석은 수련이가 일하는 생필직장 프레스 작업반장이다. 그러니 수련의 관심은 남매간의 다심한 정과 반장에 대한 반원으로서의 주의가 한데 뒤섞여진 무척 세심한것이였다.

그때라는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가방쇠생산계획이 발표된 며칠전을 가리키는것이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려면 생필직장이 일을 두세배로 해야 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행복한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얼마전에 또다시 간곡한 교시를 하시였다. 이 교시를 받들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가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 공장이 들끓고있는 가운데 그날 속보판에는 늘어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겠다는 생필직장의 결의가 커다랗게 나붙었다. 그옆에는 새로운 마름법과 짜름법을 창안 도입하여 자투리철판을 적게 내고있는 제관직장의 혁신이 큼직하게 소개되어있었다. 그것을 읽은 금석은 손바닥으로 턱을 문지르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때부터 금석의 얼굴엔 그늘이 지기시작하였다.

(확실히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수련은 그 이유를 알만하였다.

생필직장이란 공장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들을 자재로 받는데 그중에도 제관직장의 자투리철판이 큰몫을 차지했다. 제관직장에서 자투리를 적게 낸다는것은 생필직장의 자재를 줄어들게 하는 셈이다. 그러고보니 제관직장의 혁신이 생필직장의 근심을 만들었다.

늘어나는 계획, 줄어드는 자재, 이 멀어지는 거리를 무엇으로 메꿀수 있을까?

금석의 근심은 곧 수련의 근심이였다. 수련은 오빠의 밥팩을 들고 공장에 찾아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빠를 자랑으로 삼았다. 혁신자를 소개하는 사진들속에서 오빠의 얼굴이 빠진적이란 없었다.

오빠에게는 그 어떤 난관도 있을수 없다는 동화같은 믿음이 수련이에게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난다진다 하는 오빠라도 허공에서 철판을 만들어낼수는 없는것이다.

(어떻게 해결할수 없을까?)

생필직장의 소재를 폭 줄어들게 한 제관공들이 땀기도 하였다.

(어쩌면, 난 정말! ...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구... 우린 우리대로 새로운 찍음법 같은것을 찾아낼수 없을까?)

그러나 따낼만큼은 다 따낸 구멍이 아롱아롱한 철판들은 토끼장이나 닭장에 쓰거나 맞춤하였지 소재로 쓸 구석은 찾기가 어려웠다. 자투리철판 이고보니 규격이 같지 않아 구멍들 기슭에 필요 이상의 여백이 생긴것은 더러 있지만 역시 쓸모는 없었다. 하지만 파철로 내가기는 또 아깝게 생각되였다.

수련은 철판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아쉬운 생각에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아깝다고 생각하니 며칠전 오빠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수련은 금석이와 함께 도금작업장에 불일이 있어 갔었다. 평시엔 좀 덤비는 축인 도금공처녀가 가방쇠 하나를 땅바닥에 떨군채 보지 못했는지 주을 생각을 앓고 일에만 정신을 팔았다.

《동문 눈이 없소. 우리 프레스공들이 그것을 하나 더 따느라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오.》

오빠는 진정으로 가슴아파하며 그것을 주었다.

수련은 이 철판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꼭 오빠처럼 가슴아파할것만 같았다. 천길만길 땅속에 묻혔던 쇠돌이 철판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지혜, 그리고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또 지금은 최대한의 예비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수련은 무시로 눈에 뜨이는 저쪽 담벽 구호판에 시선이 갔다.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며 절약하자는 내용이 더욱 새삼스러이 가슴에 안겨왔기때문이다.

구호에서 눈길을 돌리던 수련은 기네밑에서 반제품 종집게 하나를 발견하였다. 며칠전에 그가 찍어낸 품종이다. 집어들고 보니 파철로 내갈 철판기슭 여백넓이와 비슷해보였다. 대어보았다.

(맞는구나! 더 찍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간중그려놓았던 철판들을 헤집어 이것저것 골라 맞추어보며 큰 발견이라도 한듯이 눈을 반짝거렸다.

이때 그의 앞으로 금석이가 지나갔다.

《오빠, 이걸 좀 보세요.》

금석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게 어쨌단말이나?》

수련은 대답대신 생긋 웃으며 한손에 들고있던 종집계를 그 여백에 착 붙여보였다.

《어때요? 종집계생산에 쓸 철판중에서 얼마큼은 가방쇠생산에 돌릴수 있잖아요.》

그제야 그의 생각을 알게 된 금석은 빙긋이 웃었다.

《괜찮아, 우리 수련이 생각이 괜찮단말이야.》

금석의 얼굴엔 대견해하는 표정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어딘가 진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뒤말이 그것을 확증했다.

《그런 기술을 요리조리 골라먹자면 진창길에 돌을 골라던듯이 조심스러워서 고급기능공들도 바빠할게다.》

《그래도 해야지요 뭐.》

《계획도 바쁜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니.》

수련은 잠시 생각다가 결심을 내린듯 말했다.

《내가 해보면 안되나요?》

그리고는 반대할것이 두려운듯 쟈 말씨로 덧붙였다.

《제가 해보겠어요.》

《네가?!》

《예.》

금석은 어이없이 허허 웃을뿐이다. 그리고는 작업반의 자재를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을 읽듯이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떼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이 자재예비에 한몫 볼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니.》

《...?》

수련은 멀어져가는 오빠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오도카니 서있었다. 오빠의 말과 같이 별로 큰 몫은 못되지만 그래도 퍽 기뻐할줄 알았다. 비록 작은것이지만 무시할수 없는 큰 의의를 담고있지 않는가. 오빠는 그 의의를 모르는것일까? 아니면 생산계획이란 책임때문에 밀어놓는것일까? 오빠의 마음을 딱히 짐작할수는 없으나 어쨌든 섭섭하였다.

《고모!》

갑자기 부르는 소리와 함께 영남이가 벌쭉거리며 다가왔다. 뛰어왔는지 넥타이가 바람에 날려 어깨너머로 돌아갔다.

수련은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물었다.

《왜 왔니?》

영남은 무엇을 찾는듯 두리번거리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파철 가지러 왔어.》

《파철?》

《응.》

수련은 오늘아침 집에서 있을 일이 생각났다.
...

조카 영남은 좋은 일을 하겠다면서 파철을 모으겠다고 나섰다. 집안팎을 부산스레 뒤흔던 그는 빵 굽는 틀을 가져가겠노라고 줄라댔다. 끄스름이 올라 거무스레해진것이 아마도 못쓸것 같아 보였던것이다. 성화를 받던 올케는 파철이야 공장주변에 가야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금석에게 구원을 청했다, 금석은 영남에게 눈을 흘겼으나 대답은 다르게 하였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건데 저녁에 공장에 오너라, 한집 지워줄테니.》

영남은 뽕질을 했다...

수련이 눈여겨보니 정말로 파철통옆에 따로 묶어놓은 파철판목음이 놓여있었다. 그것을 띄여본 영남은 대번에 입이 썩 벌어졌다.

《이것만 가져가면 좋은일 하기에서 내가 제일이야.》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좋아하던 그는 장난삼아 철판을 들고 송송 뚫린 구멍으로 수련을 내다보면서 벌쭉거렸다.

《고모얼굴이 곰보진것 같애.》

수련은 시무룩이 웃을뿐이다. 조카애의 기쁨이 오히려 그의 서운한 마음을 더한층 보태주는듯싶었다.

토끼장의 살창으로 쓰는, 구멍이 송송 난 철판으로 내다보는 영남의 흰 옷깃이며 울퉁한 눈은 토끼를 련상케 하였으며 그것은 문득 어릴 때 토끼때문에 생겼던 일을 생각케 하였다. 수련은 영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영남아!》

《응.》

《그전에 있던 일인데 너만한 처녀애가 있었다다. 영남이 같은 아이가말이야.》

영남은 볼이 부어올랐다.

《행! 내가 왜 너자애 같애.》

《아니 그런게 아니라 영남이만한 나이란말이야.》

영남이가 왜 너자애 같겠니.》

영남은 그제야 들을만해있었다.

《그런데 그 애는 소년단에서 말은 토끼기르는 파체를 못했어. 가을에 가서 보니 한마리가 모자랐대. 그래서 그 애는 누구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친척집에 가서 토끼 한마리를 가져다가 수자를 채웠대. 그런데 이걸 알고 그 오빠... 아니 선생님은...》

수련은 영남이의 눈길을 피하며 말을 더듬거렸으나 곧 이어나갔다.

《선생님은 그 애를 보고 막 추궁했지 뭐. 소년단원들이 토끼를 기르는것은 토끼를 더 많이 길러 나라에 리익을 주자는것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자는것인데 남이 키워놓은걸 가져다 바쳤으니 나라에 리익을 주는게 없다고 말이다, 그애는 토끼를 제대로 다 바쳤지만 우리

나라에 있는 토끼마리수는 늘어난게 아니잖나. 그렇지?!!

영남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언제나 조국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있다고 타 일켰단다.》

영남은 철관목을 들러다가 멈칫하고는 고모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획 돌아서 밖으로 달려나가버렸다.

《아니 저 애가?! 영남아! 영남이!》

그러나 벌써 저만큼 뛰여간 영남은 잠시 꺾 돌아서서 짧게 대답하였다.

《나도 알아. 다 알았어!》

수련은 마침내 미소를 짓고말았다. 바람처럼 달려가는 영남의 잔등에서는 넥타이가 또다시 뒤로 돌아와 펄펄 날리고있었다.

집에 돌아온 수련은 책을 펴놓은 책상에 마주앉아있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저녁노을에 반사된 감빛샤쓰가 그의 희고 부드러운 얼굴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글줄을 따르는 눈길과 꼭 다물린 입가에는 고민에 가까운 기색이 엿보이군했다. 그는 끝내 글줄에서 눈을 떼고 한손으로 턱을 고인채 초점없는 시선을 팔았다.

(오빠는 왜 내 의견을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듯이 스쳐버릴가...)

그 철관기슭을 모조리 쓰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가. 그럴수도 있을거야. 계획도 할수 없고... 그렇지만 아가와... 철! 철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그 나라 공업의 위력은 철생산량에 따라 규정된다지. 우리 나라는 철이 많기로 손꼽히는 나라야, 하지만 그 수요는 또 얼마나 많다구. 사람이 먹지 않고 살수 없듯이 철이 없는 공업이란 있을수 없지. 원시적인 수공업도 철의 발견으로 생겨났고... 아이참 별생각까지... 지금이야 인민소비품생산을 훨씬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더잘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것이지... 끝없이 뻗어가던 수련의 생각은 소란스런 현관 문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뒤이어 무엇인가 고해바치는 팔애의 종알거림을 웃음으로 받고있던 금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또 뭐냐? 무슨놈의 장난질을 했어?》

영남이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대답하였다.

《씨, 아버지인 알지도 못하시면서. 고모 어데 있어요?》

《까마귀 사촌처럼 돼가지고 고몬 왜 찾냐?》

수련은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순간 아연해졌다. 어디 가서 딩굴었는지 흰 샤쓰며 바지 할것없이 꺼멓고 불그스름한 흙투성이가 된 영남이가 서있었다. 두손도 역시 새까맣다. 그 손의 작간이 분명한 코밀에 그린 광대도 불만하였다. 꼭 그 무슨 굴뚝으로 빠져나온 아이 같았다.

그러나 두눈만은 장한 입을 한듯이 반짝거렸다.

수련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 호기심도 생겨서 나직하게 물었다.

《너 어디 갔었니?》

영남은 그의 달갑지 않아하는 기색에 시무룩해서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냈다.

《이걸 얻어냈어.》

쭉 펴서 내미는 손바닥에는 녹이 덕지로 앉은 조그만 수나사 두개가 놓여있었다.

《그게 뭐냐?》

《파철이지뭐.》

《파철!》

수련은 조카애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쇠조각이 있음직한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두들기고 긁어냈을 조꼬맹이의 근면한 로동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 섭섭하게 했던것을 사죄라도 하듯 그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 험한 옷과 얼룩진 얼굴이 얼마나 기특해보이는지 몰랐다.

《우리 영남이가 정말 용쿠나.》

금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방문턱에서 물러나 벌렁 나가누우며 팔애를 끌어다 팔을 배우고 귀속말을 했다.

《네 오빠 모양이 얼룩강아지 같지.》

《응, 얼룩강아지 같애, 오빠가.》

수련은 동생에게 주먹을 돌려대보이는 영남을 데리고 세면장으로 갔다.

방안에서 나는 오빠의 웃음소리에 수련은 불만이 생겼다.

(오빠 어쩔 남의 수고와 진정을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릴가. 오빠자신이 몇백키로의 파철을 짓기보다 몇갑절 더 애썼을수도 있을텐데.)

《고몬 파철을 안모으나?》

영남은 수련의 생각을 끊어버렸다.

《우리도 뭉지. 그리고 우리는 파철로 가방쇠랑 콤파스랑 만들어.》

《콤파스?! ...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쓸수 있는건 파철이 아니랬어.》

수련은 손발보다도 광채라도 내게 하려는듯 녹슨 수나사를 씻는데 더 정신이 팔린 조카의 말을 마음속으로 새겨받았다.

《쓸수 있는건 파철이 아니라구. 옳아... 그러면 우린 파철이 아닌것을 파철로 내가고있는것이 아닐가? 종집계를 만들수도 있는데... 그 철관에는 영남이와 같은 붉은 넥타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아진 파철도 들어있을텐데...》

수련은 녹슨 수나사 두개가 오빠가 묶어놓았던 철관목음보다 더 무거울것처럼 생각되었다.

자기는 생각만 하고있는데 영남인 벌써...

수련은 래일부터 구멍철관기슭으로 종집계를 따겠다고 단호하게 제기하려고 결심하였다.

젖은 무우처럼 멀끔해진 영남이를 데리고 세명장에서 나온 수련은 아래방문을 열었다.

《오빠!》

단호한 생각으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맥이 풀리고말았다. 금석은 신문을 든채 잠들어버린것이다.

푸른 빛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아침이었다. 흰칠한 키에 코마루가 우뚝한 금석은 여느때없이 높직한 밥박을 들고 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새벽이슬에 젖은 구내는 청신했다. 주물직장에서 혼사망 돌아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가 하면 단조직장의 공기함마가 식쿵, 딱-딱...하고 위압적으로 울리기는 했지만 아직 출퇴근시간전 이어서 구내길은 한적한 감이 들기까지 했다.

금석은 길다란 팔에 매달려 무릎을 다치군하는 큼직한 밥박을 느끼며 걸음을 빨리 하였다. 오늘 새벽 조반도 먹지 않은채 현장으로 나온 수련의 밥박이었다.

수련이때문에 금석은 요즘 생각이 내내 형클어져군하였다.

처음은 수련이 생각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 성미를 잘 아는터라 종집계를 따졌다는것을 막지 못했지만 거기에 기대를 건것은 아니였다. 한번 해보겠으면 속시원히 해보라는 식이였다. 한데 그는 다른 프레스공들에게서 나온 기습철관까지 죄다 모아다 판을 점점 크게 벌렸다. 벌써 수련의 발기는 작업반을 벗어나 직장적으로 알려졌고 화제거리로 되었다.

직장장은 좋은 예비를 찾았다고 금석이네 작업반을 칭찬하였다. 금석은 이 칭찬이 반갑지를 많았다. 칭찬뒤끝에는 지금 혹시나 하고 바라는 자재에 대한 추가신청의 부결이 뒤따를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나 칭찬을 부정하는것도 우스운 일 이어서 금석은 적당하세 우물쭈물 넘겨버렸다. 게다가 계획을 팡팡 야무지게 해제끼던 수련이가 요즘은 팔구십프로수준에서 배돌고있다. 따라서 작업반 생산실적이 떨어졌다.

수련이 제깎에 물러서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도 없었다. 한마디 할가하다가도 철관기슭을 요리조리 둘러가며 눈을 조프리고 땀을 흘리는 모습에 말을 못하군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챘는지 수련은 어제밤 집에 돌아와서도 눈치만 살살 보며 말을 피하더니 오늘은 어둑새벽에 직장에 나온것이다.

(죄죄만게 고집은... 에참, 빨리 자재를 받아야지.)

자재만 받으면 징검다리를 딛고 물건너는 식으로 시끄럽고 소득도 없는일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이였다.

오늘은 직장장과 함께 자재공급소에 가서 회계를 단단히 봐야 하겠다고 속다짐을 하면서 금석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란 글발을 이마

에 붙인 직장안으로 들어섰다.

철카닥! 철카닥! ... 철관을 내리찍는 소리가 웅덩이그런 직장안을 흔들어놓는다. 수레바퀴만한 관성바퀴를 등에 진 우람한 프레스앞에 앉은 수련은 소년처럼 보였다.

철카닥! 철카닥!...

빨간 머리수건을 졸라맨 뒤더수기에는 제비초리같은 머리채가 땡궁 들려있었다.

그는 뒤에 사람이 온것도 모르고 일에 열중해있었다.

철카닥! 철카닥!...

금석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왔는지를 잊어버린듯 우두커니 서있었다.

일에 전심한 수련의 좁다란 등뒤에 서있느라니 이상하게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창의고안이나 돌격작업으로 현장에서 밤을 새울 때면 수련이가 이렇게 밥박을 들고 나타나군했었다. 그는 일에 전심한 오빠를 방해할것만 같아 선뜻 찾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다가야 밥박을 내밀었었다.

한데 오늘은 금석이, 자기가 수련의 밥박을 들고 나온것이다.

(어느새 립장이 바뀌여졌단말인가.)

금석은 부지불식간에 야릇한 불안을 느꼈다. (내가 벌써 저애한테 밀려났는가?)

그러나 불안을 느낀것은 몇초동안이였다. 그는 자신있게 머리를 저었다.

크게 일이나 칠것처럼 새벽부터 부산을 피우는 걸 보면 한편 대견하기도 했지만 어이없이 웃음이 나갈 수련일뿐이다.

기계소리속에서도 록감으로 인기척을 느꼈던지 수련이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금석의 생각이 끊어졌다. 금석은 어망결에 말없이 밥박을 불쑥 내밀었다.

수련은 미안스런 웃음을 지으면 그것을 받았다. 오빠에게 밥박까지 들고다니게 하는것이 미안하였다. 그 기색을 알아본 금석은 넋지시 마주 웃었다.

《밥박으로 말하면 내가 수련이한테 술한 빛을 지고있는데 ...》

《오빠 별소릴 다하셔.》

수련은 밝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젠 이 기슭을 골라따는게 껍 쉬워졌어요. 오늘은 꼭 백프로를 초과할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며칠만 더 숙련하면 문제없을거예요.》

《기능이란게 장마철 오이 크듯 하는게 아니야.》

《... ...》

《이제는 그만큼 자기 힘을 시험해보았으면 손을 드는게 어떠냐.》

처음 룡담인가 했던 수련은 점점 눈가에 힘을 모으며 금석을 쳐다보았다.

(아직도 이 일을 진정으로 대하는게 아니구나.)

《이건 하루이틀 해보다 그만둘 일이 아니라구
생각해요.》

《지금 작업반 계획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기
나하니. 생산일군이 계획을 못하고야 무슨 체면
에 낫을 들고 다니겠니.》

수련은 밥판을 옮긴 보자기끝만 만지작거렸다.

계획을 못하면 얼굴을 못들고 나라살림과 남의
구슬땀을 무시하고는 떳떳한가.

철판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수 없지 않은가
...

금석은 말없이 서있는 수련을 자기대로 판단했
다. 좀 아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겠지
만 어쩔수 없이 오빠의 의사를 따르는 동생이라
고 판정했다. 그래서 한결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
으로 밥을 권했다.

《왜 그러고만 있냐. 더 식기전에 어서 먹어라》

그러나 수련은 서글픔이 어린듯한 음성으로 다
른 말을 했다.

《오빠 정말 모르겠어요.》

그는 고집스런 눈길로 금석을 응시하였다. 그
시선은 점차 위태위태한 불꽃으로 변했다. 방금
화살이라도 튀어나올듯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수련은 더는 입을 열지 못하고말았다.

통계원의 목소리가 들렸던것이다.

《반장동무, 직장장동지가 찾아요. 자재과에서
철판을 주겠다는것 같습니다.》

《철판을!》

사무실쪽을 향해 성큼성큼 걷는 금석의 눈앞에
는 벌써 수련의 눈동자가 아니라 번뜩거리며 겹
쌓여있는 철판들이 얼른거렸다.

수련은 출입문우에 높이 붙은 등그런 전기시계
를 자주 쳐다보았다. 교대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찍어낸 제품을 눈짐작으로 가늠해본 그는 이제
한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오빠에게 쏟지 못한 마음을 일손에 쏟아부었지만
오늘도 계획을 초과하였으리라는 자신은 생기지
않았다. 아침에 오빠앞에 선포한 말이 있어서라
기보다는 계획때문에 애쓰는 오빠의 마음이 리해
되며 또 계획은 누구나 어겨서는 안되는 법적과
제이기때문이다.

그는 마지막 시간까지 일손을 서둘렀다. 프레스도
철판도 그의 초조한 마음을 짐작한듯 조화
맞게 움직여주었다.

철카닥, 철카닥! ... 프레스소리는 시계추소리같
기도 하였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코등에 맺힌 땀방울이 철판우에 떨어졌다.

(어에서 물이 떨어질가? 비가? 아니 땀이구나

...참 조금만 조금만 더 ...)

극도로 긴장해있던 탓인지 수련은 교대신호가
검버거렸을 때 화닥닥 놀라기까지 하였다.

기계를 인계해준 수련은 찍어낸 제품을 저울때
앞으로 밀어갔다. 조급한 눈길로 저울눈금을 맞
추는데 생산일지를 든 금석이가 다가왔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몹시 기분좋은 얼굴이다.

저울추와 눈금, 제품을 일별한 그는 잠간 속셈
을 하더니 선심이나 쓰듯이 《백공일프로다》 하
며 빙긋이 웃었다.

수련은 안도와 함께 기쁨으로 입술이 방실히
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얼굴을 붉혔다. 일이라
는 수자가 부끄러웠다.

한데 이때 급히 다가온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
은 수련의 얼굴을 더욱 빨갳게 만들었다. 예술극
장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시내로력혁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있다면서
빨간초대장을 내밀어주었다.

《어마나 내가 어떻게 그런델...》

두손을 등뒤로 감추며 한결을 물리서는 수련에
게 사로청위원장은 다잡고 쥐여주며 시간이 늦지
않게 서둘러 떠나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수련은 프레스옆에 널려있는 구멍철판
들을 둘러보며 또 망설였다. 래일 쓸 기습철판을
끌라내야 했다.

수련의 마음을 알아낸 한 아주머니가 그의 등
을 밀어주었다.

《뒤일이야 오빠가 어련히 봐주지 않으리.》

금석이도 흐뭇하게 응했다.

《어서 가봐라.》

수련이가 배우들에게서 받았던 꽃다발을 송구
스럽게 안고있다가 공연을 마친 배우들에게 다시
안겨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오빠는 무슨 학습과제가 밀렸다고 책상앞에 마
주앉아있었다. 얼핏 보아도 눈에 띄게 그의 얼굴
엔 만족한 기분이 여전히 흐르고있음을 수련은
보았다. 책상우의 책은 의무에 못이겨 퍼놓은것
이 분명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정
적인 음악에 발장단을 맞추며 흥얼거리고있었다.

금석은 원래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지 못했다.
수련은 그가 크게 소리내여 노래하는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노래는 좋아했다. 발장단과 코노
래, 이것은 그가 매우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버릇
이라는것을 수련은 어려서부터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그는 아침에 통계원이 찾던 일을 미루어 짐작
이갔다.

(철판이 해결된게지.)

그러자 문득 생각되는게 있었다.

《오빠, 아까 현장에서 부탁한 일도 다 제대로 됐겠지요?》

《? ...》

《태일 쓸 기습철판말이에요.》

《그것말이나...》

금석은 대답을 더듬다가 수련의 긴장한 기색을 보고 위안하듯 말했다.

《오늘 좀 두루 일이 바쁘다보니... 그게 대수냐. 래일부터는 새 철판이 기대옆에 무독히 쌓일텐데.》

《예?!》

수련은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그만 억이 막혔다. (어쩌면 그렇게 건성건성 밀어버릴수 있단말인가.)

수련은 가슴속에서 치미는 걱정을 누를수 없었나.

《오빠, 정말 옳지 않아요.》

《?...》

《오빠 언젠가 도금공이 가방쇠 하나를 떨렸을 때 얼마나 아픈 소리를 했어요. 자신의 땀이 깃든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와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의 땀이 들어있는 나라의 재부에 대해서는 왜그렇지 않아요.》

금석은 때아닌 공격에 눈이 둥그래질뿐이다!

수련은 수련이대로 온 얼굴에 모닥불을 들쭉듯 화끈 달아움을 느꼈다. 오빠앞에 웅석만 부려오던 자기가 이렇게 당돌하게 맞서게 되는것이 스스로도 놀라왔다. 그러면서도 터쳐놓은 무덤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오빠 모든걸 생산계획에 걸고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예요. 영남이의 기특한 노력을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것도, 오늘 저의 부탁을 무시한것도 계획때문인가요. ... 토끼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저를 두고 오빠는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 가르쳤어요.》

금석은 급기야 책상을 땡-쳤다.

《그만하지 못할가.》

금석은 뜻밖에도 가슴을 찢리운 사람처럼 얼굴을 찌프렸다. 차라리 허황한 감투나 썩은다면 그저 웃어버릴 그였으나 어쩔수 없는 진실을 다치는데 신경이 자극되었던것이다.

자기 방에 돌아온 수련은 얼굴을 싸쥐고 오래 오래 울었다. 자기자신이 모욕을 당한것 같아 억울하고 분했으며 서글펐다.

수련은 꿈을 꾸다 깨어났다. 용광로로 갈 파철통에다 오빠가 마구 쓸어넣은 기습철판을 지게차가 와서 통채로 실어가는것이였다. 그는 지게차

를 멈춰세우자고 소리치며 뛰어가려고 애쓰다가 용케도 깨어났다. 첫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얼른 분간을 못했다.

잠시후 그는 푸름푸름한 창문에 걸린 은행나무를 보고야 직장이 아니라 자기를 포근히 감싸주고 잠재워주는 방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으나 잠들수 없었다. 점점 밝아지는 창문은 아침이 되면 정말 지게차가 와서 파철통을 실어가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코등에서 땀방울을 떨구며 파철통에서 구멍철판들을 끌어내던 수련은 인기척에 놀라 허리를 폈다.

맞은편에 우뚝 서있는것은 오빠였다. 말없이 마주보는 그의 눈은 피발이 섰으며 그 얼굴은 몹시 수척해보였고 표정은 침울하고 심각했다.

수련은 오빠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오빠의 출현이 기쁘기도 했고 거북스럽기도 했다. 오빠도 이 철판에 생각되는바가 있어 때아니게 나왔으리라는 믿음은 기쁜것이였고 수척해진듯한 얼굴을 보니 자기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미안스럽기도 하였다.

수련은 무슨 말이건 오빠가 먼저 하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밤새 모대기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던 금석은 안해가 흔드는 바람에 번쩍 눈을 떴다. 안해는 수련이가 또 새벽에 집을 나갔다고 몹시 조심스럽게 깨웠으나 금석은 겹에 질린 사람처럼 화닥닥 일어났다.

수련이가 나갔다는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였지만 무엇인가 잠재적인 자책감이 그를 떠밀었던 것이다.

금석은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그 앤 성실성과 정직성을 두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금석은 아직 자신의 정직성이나 성실성을 의심해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수련을 가르치던 그 마음처럼 행동이 앞서지 못하는 때가 설혹 있다손쳐도 말과 행동, 이론과 실천사이에는 어쩔수 없는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오차와 모순은 응당한것이라고 단정했기때문이다.

(...남의 노력과 나라의 재산을 흠시한다고...)

금석은 사람의 랑심을 가리우고있는 온갖 체면과 자극당한 자존심을 억누르고 냉혹한 리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그는 마침내 수련을 부정할 론거를 찾지 못했다. 수련은 기습철판을 쓰는데 성공해가고있다. 금석은 공장 어느 구석에서나 볼수 있고 혹은 무심히 짓밟기도 한 쇠조각들을 단순한 쇠붙이로

보았지 그 한조각도 충성의 땀으로 이루어진 조국의 재부이며 자기들의 땀이 한방울도 허실없이 인민의 복리에 바치지기를 원하는 수련이와 같은 그 마음을 생각지 않았다. 영남이가 주어진 수나사 두개, 수련이가 쓰는 철판조각, 그것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고 다루는 사람들의 충실성과 성실성이 귀중한것이다. 사람의 땀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지, 그 단순한 리치를 몰랐단 말인가, 금석은 스스로 머리를 저었다.

그는 문득 수련이가 놀랍게 생각되었다. 아직 아이로만 생각해온 그가 어느덧 3대혁명의 시대를 걸머진 우리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튼튼히 발붙이기 시작한것이다. 금석은 그것이 무한히 기쁘기도 했고 며칠전 동생의 밥팩을 들고 나왔을 때 느낀 야릇한 불안이 무엇이었던지 스스로 알려지는듯싶어 자신이 서글퍼지기도 했다.

수련은 계속되는 침묵을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빠의 얼굴을 다시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엔 종잡을수 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되고있는것을 보았다.

어찌보면 흉허물을 털린 수치때문에 격해있는 듯도 하고 또 다르게는 용서를 비는 허심한 눈길인가하면 자극당한 존엄때문에 피로와하는 빛이 스치기도 했다. 또한 수련이, 자기를 대견스레 여길때 바라보곤하던 부드러운 눈길이 지나기도 했다.

(몹시 피로와하는구나. 내가 지나쳤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오빠가 자신을 돌이켜볼수도 있었을텐데.)

수련은 마주보기가 웅색스럽고 거북하여 다시 허리를 굽혀 파철을 꺼내는데 열중하는척하였다. 한데 갑자기 파철통이 기울어지며 철판조각들이 와르르 쏟아지는바람에 수련은 한걸음을 물러섰다.

금석이가 다가와 파철통을 넓혀주었던것이다.

《많기도 하다.》

금석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걸 네가 계속 짝덜만하냐?》

《...?》

수련은 다시 눈살이 찡찡해졌다.

《네가 힘에 부칠것 같아 기능공들에게 맡길가 해서 그런다.》

수련의 눈길은 다시 꽃잎같이 부드러워졌다.

《일없어요. 제가 맡겠어요.》

(역시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야.)

수련은 자기를 여전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오빠앞에 더욱 미안해졌다. 그는 금석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동시에 지나쳤다고 생각되는 자

기의 경망을 용서 비는 눈길로 금석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알만하다. 네 마음을...》

금석은 갑자기 말을 끊어버렸다. 이때 출근하는 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련은 당황했다. 동생앞에서 자기 잘못을 책하는 오빠의 모습을 반원들이 본다는것은 수련이로서 참기가 어렵다. 당장에 도망치고싶었다. 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처럼 점점 더 머리를 떨어뜨렸다. 오빠가 어데로건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우뚱 버티고 서있는 금석이앞에 머리를 떨구고 오도카니 서있는 수련의 모습은 마치도 동생이 오빠에게 추궁을 받는것처럼 보였다. 반원들도 그렇게 보았다.

《반장동무, 그만해두시오, 어린것이 혹 실수를 할수도 있겠지요.》

이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던 수련은 금석의 허거른 웃음에다시 마음이 조여들었다.

《동무들 사실은...》

《오빠!》

《가만있거라.》

반원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반장의 기색을 눈여겨보니 사태는 달랐다. 분위기는 대번에 어색해졌다. 금석은 뒤말을 잊지 못한채 어쭙은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수련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눈길을 주체 못하였다. 반원들은 보지 말았어야 했을 일에 뛰여든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웅색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한순간이었다.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비판을 받았소.》

금석의 허심한 목소리가 거북스런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자기 발앞에 널려있는 철판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한조각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연을 홀시했다는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로력을 아끼고 사랑할줄 몰랐소. 그들이 이루어놓은 재부를 술금 술금 쏟아먹었던말이요. 나도 원래 위대한 수령님과 당앞에 정직하고 성실할것을 원한 사람이었소. 사람이 자기를 부단히 가꾸고 키우며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온갖 불순물에 접근하게 되는가보오.》

금석은 기슭철판을 하나 골라들고 말을 이었다.

《이것이 내가 파철통에 집어넣었던것이요. 아마도 프레스공때부터 세면 수신통을 넘을게요. 바로 어제도 그랬소. 나는 생산도 많이 했고 혁신도 했소. 그래서 칭찬도 받고 사진도 여러번 났소. 그러나 나는 결국 거기에 머무르고말았소.

자기 책임에 성실할뿐만아니라 남의 로력, 자기 계급이 이루어놓은 모든것을 귀중하게 대할 때만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될것ियो.》

반원들의 눈길은 심중해졌으며 오빠의 결함이 공개되는것을 두려워했던 수련이지만 그는 홀린

듯이 금석을 쳐다보았다.

나타난 결함이상으로 자신을 신랄하고 허심하게 털어놓는 오빠에게 새로운 존경이 갔다.

(나는 아직 오빠만큼 생각하려면 멀었어.)

소조원이 떠나는 날

한기운

몇해전

흰눈내리는 고개길로

마을에 오던 그 모습 그대로

푸른 배낭 하나를 지고

그대 오늘 새 고장으로 떠나간다

깊어진 정을 두고 떠나는 그대 마음

뜨거워 손 저울수록

보내는 마음속에

더 가까와지는 사람아

못잊어 어제런듯싶다

앞장서 뚝을 쌓던 그대의 삽날끝에서

덧없이 흐르던 시내물이 흐름 바꾸던

그날의 그대 밝은 웃음이

저 논배미들에 금빛이상으로 설레이는가

오던 해 그 봄-

불밝은 방안에서 무릎 맞대고

새 과원도면에 그려넣던 복숭아, 추리나무...

그대로 저 산기슭에 푸른 아지 벌렸거니

첫 열매 울긋불긋 타는 노을빛은

이 마을에 두고가는 그대 마음인가

뜨락또르 비껴가는 저 다락밭에

영양단지 모포기 세여가다도

수령님 헤아리신 포기농사의 수자에

우리 어찌 빈자리 두고 마음 편하랴

봄바람에 감실한 그대의 얼굴

밤새도록 화불밑에서 빛나던 모습이여

잊지 못한다

와서 함께 산 나날이 소중해

당보가 큰 문자로 그대 한 일 자랑해줄 때

신문을 안고 달려간 우리 손을 꼭 잡으며

수령님 바라시는대로 일을 잘 돕지 못했다고

그리도 진정넘치던 그대의 심정을...

아, 산이면 가지마다 수령진 과원을 넓혀가고

들이면 만풍년의 난가리 쌓았건만

떠나는 이 아침

그대만은, 그대만은

오던 날의 그 배낭 하나만을 가뜰히 지고가거니

그 마음 수령님께 기쁨드릴 한 생각뿐

그 걸음 수령님 바라시는 한길만을 굳게 걸어

언제나 푸른 봄날에 만풍년의 가을날에

그대와 함께 걷던 그 들길에

우리 변함없이 안고살 충성의 마음도

땅깊이 뿌리내려주고 가는 그대여

미더웁다, 떠나는 그 모습

오던 날의 그 배낭 하나만을 지고가고

떠나는 길 뒤에는 전변의 새마을 남겨놓고

떠나는 길 앞에는 꽃피울 새길만 안고가거니

아, 저 고개길로 그대 모습 멀어져가도

수천수만의 걸음들이 따라서는

3대혁명의 길우에

어데를 가도, 그 어데 있어도

우리 그대를 못잊으리라

3대혁명소조원-

주체형의 참다운 사람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 당에 의해 교양된 주체형의 혁명가의 영예를 생산과 건설의 실천적성으로 높이 떨치라!

-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막장에서 보내는 노래 외 1 편

강립석

땅우에 사는 나의 벗들이여
땅속의 막장에서 이 시를 쓰노라

받쳐든 종이장에 탄가루 흩날리고
적어가는 시행우에 석수가 떨어져도
못견디게 못견디게 쓰고만싶구나
여기 주타격방향 우리 탄부들의 이야기...

땀을 흘리며, 땀만이 아닌 뜨거움을 쏟으며
정대를 갈아대는 저 착암공
그 모습 그대로 노래런듯
나의 발길 멈춰세우누나

커다란 마스크로 그 얼굴 반나마 가리우고
탄차를 몰아가는 청년탄부
젊은이의 그 빛나는 눈동자도
다시, 다시만 보고싶고

가파로운 중단의 울리굴
말 못하는 하나의 동발과도
그 밑에 지쳐내린 커다란 발자욱과도
무엇인가 뜨거운 이야기 나누고싶구나

오래오래 보아두고싶은 사람들
길이길이 기억해두고싶은 이야기들
이 지하전구의 약동하는 서사시를
내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아, 깊고깊은 땅속에 있어도

가장 높은 충성의 령마루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가는

우리 탄부들의 이 참된 위훈

내 다만

실려가는 저 석탄우에 부치거니

동무여, 그 석탄이

해빛을 받아 반짝이거든

그것은 바로 저 젊은 채탄공의

꿈많은 미소인줄 알아다오

공장을 돌리며 전기를 일구며

그 석탄이 높은 열을 뽑거든

그것은 바로 저 조구공아바이의

충성이 불타는줄 알아다오

그 어느 불밝은 전등밑에 썼을 때도

그 어느 따뜻한 방안에 있을 때도

바로 그 빛과 열을 위해

천길지심 조국의 돌파구앞에

안전모를 벗을줄 모르는

탄부들이 서있음을 알아다오

오, 땅우에 사는 나의 벗들이여

석탄, 석탄, 바로 그것이

우리 탄부들이 새 7개년의 대문에 들어서며

땅우에 보내는 노래인줄 알아다오

인차가 오른다

희미한 전등불도

땅우의 해빛처럼 안겨주는

갱안의 인차정류소

밖에서 내려온 두줄기 선로가

어머니의 두팔처럼 정다운

갱안의 인차정류소

등그런 돌천정 넘지 않은 대기실엔

안전모 벗어두고 땀을 들이는 굴진공들

서로서로 어깨도 치며

통담에 취한 젊은 채탄공들

오늘도 새로운 탄발을 향해

가슴으로 막장을 밀어간 이야기

오늘도 기쁨에 젖은 석탄을 올려

조국에 열을 주고 빛을 준 그 자랑

가야 할 공장대학 숙제문제 이야기며

불러야 할 중대의 중창에 대한 이야기들

웃으며 떠들며

돌아갈길 잊은듯 신명들 났는데

아, 인차가 내려온다

땅우에서 인차가 내려온다

개선하는 영웅들

우리의 탄부들을 맞으려 인차가 온다

자, 어서들 타자

즐거운 그 웃음소리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 그대로 안고 타자

웃음 없이야 노래 없이야

그 무슨 탄부들의 퇴근길이라

어서들 오르자

들으면 온 나라가 경탄할 그 위훈의 이야기

우리의 수령님께서 들으시면

누구보다 제일 기뻐해주실

여기 주타격방향 승리의 소식

그대로 안고 오르자

올라가면 푸른 하늘이

따사로운 해빛을 뿌려주리라

올라가면 푸른 대지가

정답게 살뜰하게 안아주리라

아, 인차가 오른다

우로우로 인차가 오른다

마치 영예의 단우로

우리의 탄부들을 안고 가듯이

우로우로 인차가 오른다

올라가는 저 탄부들과 함께

우리의 조국은 또 그 얼마나

높은곳에

아름다운곳에 오른것이나

아, 인차가 오른다!

아득한 들 그 어디를 밟아도

홍현양

안개 걷히는 산밭
긴 이랑을 따라
첫 이슬을 맞으며 걸을 때
어찌하여 생각은 이렇듯 깊어지는것인가

천만 벼포기들이 속삭이며
벌에 차고넘치는
두령을 따라 걸을 때
어찌하여 마음은
이렇듯 설레이는것인가

바라보면 산과 들
눈이 시도록 해빛에 싸인 땅
한줄기 바람결에도
당의 목소리 다정하게 들리어오고
포기마다 흘러드는 물줄기에도
당의 목소리 노래되어
가슴에 젖어들어라

아득한 벌
그 어디를 밟아도
그 어느 배미를 가꾸어도
당의 편지를 받아안던 그 밭머리에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뜨거운 그 목소리

내 나서 자란 땅을
떨어져 살수 없듯이
나를 키워준 어머니당을
떨어져 순간도 살수 없나니
땅은 내 마음
당은 열매를 주는 해빛

날마다 아침마다
걸음걸음 이슬에 젖으며
들판 아득히 꽃을 피워감은
당의 뜻을 받들어
행복으로 안아올리는

당의 깨끗한 량심이 아닌가

이 땅 이 벌에 밟발치는
당의 해빛 갈피갈피마다에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이 있듯이
아득한 들 그 어디를 밟아도
이랑이랑 심어놓은 씨앗마다에서
그 행복 그 기쁨이
아지치며 움트는 소리 들리어와라

그 소리 따라
한밤중에도 들길에 나서고
그 소리 따라
지하수의 맑은 물로
포기포기를 적셔가나니
당이 준 내 심장
수령님을 받들어 변함이 없음을
푸르른 들이 다 말해주고있어라

아, 한생을 가꾸어가는 벌이여
당을 따르는 내 마음인 땅이여
이 가슴속에 빈곳이 하나도 없듯이
아득한 들 그 어디를 밟아도
미래를 안고 숨쉬는 이랑이랑들
한치도 비어놓고 살수 없는
조국의 벌이 아니냐

충성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온
이 땅 이 벌과 함께
영원히당을 따르는 마음
언제나 이슬길에 첫자욱을 내거니

아, 아득한 들 그 어디를 밟아도
이슬길우에 내는 그 자욱
설레이는 벼바다
천만이랑의 물결로
산과 들에 끝없이 이어졌구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류민호

구내길에 만발한 꽃향기도
만경대로 만경대로 흐르는 4월에
한해계획 넘쳐한 방직공처녀야
기대앞에 선지 엇그제 같은데
구내가 떠들썩 방송은 네 소식 전하너

모두가 너를 진정 축하하고싶어
정녕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고싶어
너를 찾아 기대로 달려오는데
빨간머리수건에 물든듯 타는 얼굴에
너는 말이 없이 일손만은 놓지 않는구나

처녀야, 너를 웃음으로 쳐다보는 저 눈빛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를 축하하는 저 마음들
내가 말이 없다고 어찌 모르랴
너의 그 마음을 저 기계가 다 말해주고있는데
네 가슴에 품은 사연
고르로운 동음소리 울리는
저 방직기가 다 들었는데-

한해를 보내는 공장의 밤
창가에 송이송이 눈내리던 그 밤
만경대가 새겨진 새 달력을 걸며
너는 너는 가슴에 품은 사연
기계와 도란도란 속삭였지
모든 꽃이 다 피는 4월에
우리가 피울 꽃도 비단천에 모두 피우자고

그 마음 기계도 알아
설명절의 그 밤도 쉬임없이 돌고돈줄
온 공장이 다 아는데
어이하면 기계를 더 말할수 있을가

어이하면 더 많은 천을 짤수 있을가
어버이수령님께 한해에 드릴 기쁨을
4월에 드리자고, 4월로 앞당기자고
밤이 따로 있었으랴
설참이 따로 있었으랴

눈내리는 그밤에도 꽃피는 4월에 살며
오직 가슴에 불타는 한마음
갈매기처럼 기대사이를 날고날며
네가 달린 길 천리라 만리라

손끝에선 꽃바람이
눈빛에선 번개가
오리오리 날실엔 마음을 걸어놓고
돌아가는 기대엔 너의 타는 열정을 실어놓고
오직 4월로만 달려왔더라

방직공처녀야,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을 위해 만수무강을 위해
정녕 4월을 향해 달려온 네 마음
그리도 아름다와
내가 짜낸 저 비단필이 그리도 눈부시고
네 마음 그리도 불타
송이송이 수놓은 천만송이
그리도 향기로운것이 아니냐

처녀야
어버이수령님 받드는 네 마음이
해와 달을 앞당기고
세월을 앞당겨
충성의 꽃송이로 비단필에 피여났구나

입당청원서

백하

하신거리건설이 벌어지고있는 서평양일대는 내가 잊지 못할곳이다.

이날밤도 나는 퇴근후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끌듯 건설장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불었다. 어찌도 상쾌한지... 숨은 공로자들, 사랑스러운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의 물결을 헤치며 가설등밀로 걸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사이 철길을 들어냈는데 한옆으로 나가누운 레루우에 낮익은 얼굴이 보였다. 한 야간청년돌격대 정치부대대장 립동무였다.

그는 한 청년과 레루우에 가지런히 앉아 무스흔 종이장을 무릎위에 놓고 한자한자 만년필로 짚어가고있었다.

립동무도 나를 발견하고 반기였다.

《또 나왔습니까.》

《네... 헌데 무엇을 그렇게...》

《이 동무의 입당청원서를 보아주던걸입니다.》

청년은 나를 올려다보며 어줍게 웃었다. 눈이 서글서글한 스물네댓된 청년이다. 검실검실한 팔뚝에선 땀이 번들거리고있다.

(입당청원서!)

나는 부지중 속으로 부르짖으며 말없이 레루우에 같이 앉았다.

청년이 자리를 뜬뒤 립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시의 여러개 대상건설에 야간지원돌격대로 참가한 동무입니다. 좋은 동무이지요, 저렇게 입당청원서를 봐달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저 동문 입당심의를 받는 날까지 입당청원서를 완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 어떤 표현도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해줄수 없으니까요.》

끝맺지 못한 입당청원서! ... 나도 27년전 끝맺지 못한 입당청원서를 품고 바로 이 부근의 레루를 넘어다녔다.

1951년 봄, 나는 전투부대에서 신문사에 소환되어 기자로 복무하고있었다.

그때 전방취체활동도 험치 않았지만 밤마다 적기의 맹폭격을 뚫고 평양 시내에 들어가 조선중앙통신을 가져오는 일이 어려운 전투임무였다.

더구나 밤마다 폭탄이 무시로 쏟아지는 서평양 조차장철길부근 넓은 구역을 통과하는 일은 간고하였다.

바로 거기서 내가 폭풍에 맞고 흩무지에 묻히며 중앙통신을 날라온 다음날이었다.

온종일 수습리박에 있는 구분대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방금 돌아와 눈을 붙이었는데 직일관이 급히 나를 깨웠다. 또 중앙통신을 가지러 시내에 갔다오라는것이였다.

내가 갈 차례가 아니였다. 그러나 전투명령이다. 이때 나는 스무살, 기자들중에서 제일 어리었

고 단련되지 못하였다. 일어났으나 자꾸 눈이 감기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지휘관의 눈빛을 본 나는 두말없이 장화를 꿰었다.

이날밤 중앙통신을 찾아가지고 오던 나는 조차장 못미처서 또 폭격에 걸리였다. 나는 논두렁굽에 엎디어 흙덩이들에 얻어맞았다...

가증스런 미제폭격기들의 폭음은 사라졌으나 이번엔 시한탄들이 튀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밤 3시... 이제 우회하여 돌아갈 시간적여유도 없다. 제시간에 어김없이 신문을 찍어내야 한다. 또 하루 혁혁한 전과를 거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어서 신문에 내야 한다.

나는 중앙통신이 든 전투가방을 벗어 옆에 끼고 흩먼지의 장막속으로 돌입하였다. 얼마쯤 달렸는지 눈앞이 번쩍하며 요란한 폭음이 터지는 순간 나는 어쩔나 내던져지였다... 눈을 떠보니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있었다. 전투가방은 품에 안겨있었다. 나는 웅덩이를 기어나왔다. 그리고 주먹을 부르짖고 다시 달렸다...

신문사에 도착하니 당원들, 지휘관들이 자지 못하고 편집국에 모여앉아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 쉬고 모두 자기 방으로들 흩어져갔다.

그러나 당조직에서는 이틀후 또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기였다.

이해말, 당조직에서는 나에게 입당청원서를 쓰라고 하였다. 그제야 나는 그동안 당조직에서 입당준비를 시키며 나를 도와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중앙통신과 함께 입당청원서 초안이 든 전투가방을 메고 깊은 밤 조차장을 넘어다니군하였다.

나는 여기서 폭격에 걸리면 가까운 방공호에 들어앉아 전투가방안에 입당청원서를 넣고 구절구절 고쳐가군하였다.

그러나 나도 입당심의를 받는 순간까지 입당청원서를 마음후련히 완성하지 못한채 잊지 못할 그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준엄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어 해방후 몸소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끝없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으로 되기에는 자기의 준비정도가 너무도 어리었고 한 일이 너무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참말로 그 어떤 표현도 당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그리도 열렬히 갈망하던 나의 절절한 심정을 씨원히 담아주지 못하였던것이다...

건설장에서 본 그 청년도 그때의 나와 같은 심정일것이다. 때문에 그도 입당청원서를 쉽게 쓰

지 못하는것이리라.

림동무는 함께 건설장을 걸으며 말하였다.

《그 동무만이 아닙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니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열망은 대단합니다. 오늘밤 또 12명의 청년들이 새로 찾아왔습니다.

인젠 우리 한 야간청년돌격대만해도 수백명이 되는데 그들모두가 그 간절한 열망을 품고있다고 말할수 있지요.》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도로건설장에 뛰어번지고있는 청년돌격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기 직장에서 하루일을 마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하신거리건설장으로 달려와 충성의 땀을 쏟고있는 그들 평양시안의 청년지원자들! 충성에 불타는 그 젊은 가슴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려는 불같은 소중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사실 그들은 귀중한 충성의 땀으로 말없이 입당청원서를 쓰고있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청년들의 무한한 충실성이 온 건설장에 뜨거운 굵이 친다.

그속에는 끝맺지 못한 입당청원서를 가슴에 품고있는 그 청년도 보인다. 그는 세차게 땀이날을 내리찍고있다. 눈섭과 턱끝에 연신 땀방울이 맺혔다가는 휘뿌려진다. 그는 마치도 끝맺지 못한 입당청원서를 약동하는 온몸과 심장으로 끝없이 대지에 쓰고있는듯싶었다.

가슴이 후덥다. 나는 다시 건설장을 걷는다. 그전날 나를 당원으로 키워주기 위해 어려운 전투 임무를 맡겨주던 그 지휘관들, 잊지 못할 얼굴들이 떠오른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나는 지금도 어려울 때면 그때의 그 당원들의 엄격한 눈빛을 본다 잊을수 없다. 아니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입당준비를 하던 나의 옛자욱을 다시 뵈으며 걸어간다. 근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나는 이 부근 어느 방공호에서 폭격의 화광아래 구절구절 입당청원서를 고쳐가던 나의 옛모습을 생생히 눈앞에 본다. 그때의 나의 마음속 허전한 구석을 메우며 나는 오늘도 입당청원서를 계속 쓰고있는 심정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과 끝없이 충직한 참된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야 한다.

나는 지금도 입당청원서를 쓰고있는 마음 그대로이다.

이 문을 나서

김흥권

문이 조용히 열린다

또 한사람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품고 나선다

김일성 동지의 당 당원이 나선다

몇번째 당원을 바라주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며

활짝 열려있는 당위원회 문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섰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선 문

바로 이곳을 나선 사람이

용광로의 첫 화입식을 지휘했고

소뿔에 꽃다발을 걸고 애국미를 바쳤다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날아들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공작기계 새끼를 쳤고

6천톤프레스를 조립했다

여기를 나선 사람이 그 얼마인지

어찌 다 알랴

어디에 있는지 어찌 다 알랴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고드름 얼어붙는 철탑우에 입김 날리고

만리 원양우에 웃음날리며 그들을 추고

천길막장에서 발파구멍을 조절하고있음을...

진정 감동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라볼수 없는곳에

생활이 들끓는 모든곳에

그들은 웃으며 땀뿜이 서있음을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백사람이

하나의 세계로

눈앞에 안겨오는 큰 사람

당원들의 모습이어

아, 조국땅 그 어디 가나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들의 웃음이 안겨온다

땅우에 가득차

하늘에 가득차

이 문을 열고 나선

조선로동당의 당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이 땅우에 걸어간다

지구우에 걸어간다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안다-

그가 어디가 설것인가를,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갈것인가를

재일동포들속에 꽃피나는 충성의 시문학

-잡지 《문학예술》을 읽고-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없는 식민지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통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가지고있지 못하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당하면서 사람값에 가지 못하던 재일조선동포들은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나라인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다운 인간의 존재가치를 찾을수 있었다.

오늘 재일조선동포들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권위있는 총련조직을 가지고 바람사나운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슬기를 빛내이며 당당하게 살아가고있다.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이 영예, 이 자랑을 이렇게 노래부르고있다.

일본땅의 여기저기 우리 동포 사는곳에
자랑스런 총련조직 버젓하게 꾸려놓고
조국 위해 권리 위해 모든 희생 무릅쓰고
슬기로운 일군들이 단결하여 일합니다
수령님의 높은 교시 심장으로 받들고서
사업하는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북해도에서 구주까지 우리 조선사람이 사는 어디에나 초중급학교로부터 대학교까지 자랑스럽게 세워놓고서 항일의 혁명전통 빛내여가며 민족문화를 배워가는 총련동포들의 모습은 얼마나 버젓하고 당당하고 존엄이 있는가.

재일동포들의 이 긍지와 영광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것이다.

정화홍의 《조국방문시초》(《조선문학》1977, 7)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안긴 끝없는 감격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초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러마지않던 어버이수령님을 조국땅에서 직접 뵈게 된 때의 서정적주인공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의 품에 안긴 서정적주인공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이 세상 소원이 더는 없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아, 하늘에도 땅에도 비기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끝없는 행복에 어깨를 들먹이며
그만 목이 메여 나는 읊니다.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
또 무슨 원이 있으리까
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
통일된 강산에 수령님을 모시는
그 원뿐이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서정적주인공은 이 한가지 소원만을 품고 목메여 눈물짓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거칠은 이역에서도 언제나 그림고 그림던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발목이 시도록 사랑하는 조국의 대지를 걷는 서정적주인공은 충성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한다.

가슴이 터지도록 나는 부르네
위대한 수령님의 만세를
내 이 만세를
언제나 심장에 새겨
세월의 끝까지 부르리라
세월이 끝나도 나는 부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어버이수령님의 따르고 모시며 세월이 끝나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만세를 부르리라는 그 철석같은 충성의 신념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 뜨겁게 끓어번질것이다.

조국- 그것은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온 재일동포들에게 당당한 인간의 존엄을 안

겨주고 키워준 어머니의 품이었고 새삶의 요람이었다.

시 《조국의 품에서 부른 첫노래》(남시우, 《문학예술》 61호)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은 서정적주인공의 한없이 북받치는 감동과 흥분을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조국에 대한 고마움에 한껏 젖어 감격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조국의 품에 처음으로 안긴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은 그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행복, 송엄한 감정과 걱정애 휩싸여있다. 사람도, 산천도, 발을 딛고선 한 지점의 땅도 모두 새라새롭고 정답기만 하다. 그리고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서정적주인공은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한다.

뜨겁게 뜨겁게 설레이는
저 장엄한 조국의 음향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목소리가 아니냐!
사람도 산천도 모습을 달리하며
휘황하게 수놓은 밝은 웃음은 바로
그이 뜨거운 사랑의 빛발이 아니냐!

아, 귀전에 울리는 조국의 고동이어!
그립던 사람들의 얼굴이어!
숫아나는 산발이어 높은 굴뚝이어!

그렇다! 이역의 교단에서 조국이 어데냐고 아 이들이 물을 때면 지도를 펴고 붉은 별을 짚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 어머니의 품을 가리키며 가슴 미여지던 서정적주인공, 그가 바로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감사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첫 노래를 부르는것이니 그 감격을 무엇으로 대변할것이라.

아,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새시대의 하늘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시여!
찬연한 저 해빛아래
칠칠암흑에 싸였던 조선은
광명 넘치는 락원으로 무르익고
바람 세찬 이역땅에도
은혜로운 빛발 하 따사로와
겨레들 행복의 노래 마음껏 부르며
주체예술의 꽃 만발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문학예술》 64호)

주체의 태양이 있음으로 하여 번영하는 조국이 있고 주체의 해발이 있음으로 하여 바람 세찬 이역땅에서도 참된 삶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수 있다는 이 감정은 비단 재일조선인 작가, 예술인들 뿐아니라 60만재일동포들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대변한것이다.

지난날 상가집개신세가 되어 망국노의 설움에 사무쳤던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맑은 샘을 부어주시고 존엄있는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바람 사나운 이역의 길목에서 갈길을 몰라하던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새삶과 투쟁의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가까이 있는 자식들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들이 더 그리다시며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이 동해멀리 재일동포들을 보살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도 따사로워 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허옥녀, 《문학예술》 63호)는 고마움에 목이메여 뜨겁게 노래한다.

서정적주인공은 철부지시절 분회장이던 아버지의 폭신한 무릎에 앉아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들을 족치셨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끝없이 가슴이 부풀였다. 어언 세월은 흘러 이십여년, 이제는 두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어도 장군님의 그 영상은 가슴속 깊이 소중한 간직되어있다.

비록 조국의 흙내를 모르고 이국땅에서 태어났어도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며 조선의 냇을 키울수 있었으며 주체의 맑은 샘 마시고 새삶을 누리게 되였다.

그래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이렇게 노래하는것이다.

아, 수령님이시여
수령님이 계시여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이 몸
내 이 길에서
무엇을 가리며 무엇을 주저하리까.

자애로운 어버이시여
5천만 조선인민의
가장 경건한 념원과 함께
저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도 담아
어버이 수령님의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옵니다

이것이 바로 60만재일조선동포들의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이다!

철없던 서정적주인공에게 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아버지, 그가 망국의 설움을 안고 현해탄건너로 끌려갈 때 원한의 관부련락선 선실안에 아로새긴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을 보고 장군님을 우러러 마음의 등대를 켜던 그 사람인줄 어이 알라...

이처럼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마지않는 동포들의 불타는 마음은 그 어떤 련이나 시줄에 개념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체적인 감정에서 흘러나온 서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이다.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의 가슴속 갈피마다에 뜨겁게 젖어있는 이 충성의 마음은 만리타국에서 갓은 고초를 다 겪으며 갈퀴처럼 거칠어진 손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겁게 잡아주셨을 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빛났다는 감정으로 시《어버이수령님께서 손잡아주셨나이다》(김청숙, 《문학예술》 61호) 그리고 이국땅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딸의 잔치를 맞은 그날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감사의 노래 (시 《처음 불러본다오》, 로진용, 《문학예술》 61호)로 되어 더욱 절절히 울려오는것이다.

특히 시《처음 불러본다오》는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뜨거움으로 하여 강한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어미 없는 딸자식을 키워온 아버지의 생활을 한잔의 막걸리에 담아 하소하며 애수가만 부르던 령남로인, 그러나 오늘은 잔에 가득 기쁜 술을 부어넣으며 딸의 잔치를 맞았으니 이 경사를 치르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

정용으로 끌려와 지옥같은 이 땅에서 이런 경사 꿈엔들 생각했겠소.

어느분의 덕분인줄 내 어이 모르겠소
고마우신 수령님의 크나큰 덕분이지

.....

처음 불러본다오
입속말로 불러오던 《아들자랑 딸자랑》
이 딸을 키워준 우리 수령님께
감사의 정을 담아 목청껏 부르겠소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 아니었던들 어찌 이런 경사를 이역타관에서 맞을수 있었으랴.

민족의 태양을 모신 당당한 공화국의 공민이기에 애수가만 부르던 로인의 한생에서 처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것이다.

재일조선동포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 그것은 수령님을 모신 권위있는 공화국의 공민된 감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며 세파에 밀려 삶의 한가닥 희망마저 다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안겨주셨으니 그것은 참으로 새삶의 탄생이었다.

어머니조국의 해외공민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반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충성의 노래- 이것은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충성의 대합창인것이다.

재일조선작가들의 시에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가지고 총련애국사업에 펼쳐나선 동포들의 미더운 모습과 기개가 잘 반영되어있다.

재일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도록 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동포들을 불러일으키는 분회장의 애국투쟁을 노래한 시 《주체의 마음씨》 (오상홍, 《문학예술》 61호)와 《분회장의 유산》 (문중렬, 《문학예술》 61호)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선물공장모금에 펼쳐나선 동포들의 충성을 노래한 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류원성, 《문학예술》 64호)와 분회결성에 적극 나선 동포어머니들의 마음을 노래한시 《충성의 열매》 (박영란, 《문학예술》 63호) 등 많은 시들이 총련애국운동에 이바지하는 동포들의 생활을 잘 노래하고있다.

특히 시 《한 로인의 노래》 (한룡무, 《문학예술》 63호)는 깊이있는 생활탐구로 하여 총련애국사업에 펼쳐나선 한 로인의 사상적신념을 잘 개방하고있다.

이역의 칼바람이 기승을 부릴 때 한잔술에 모진 세월을 저주하던 그 로인이 오늘은 성인학교에서 우리 글도 배우고 신망높은 분회위원이 되었을뿐아니라 자식들까지 총련일군으로 어엿이 키웠다. 그 로인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로작의 갈피갈피를 번져나간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삶과 투쟁의 보람을 찾는것이다.

오늘은
품팔이 리동포를 분회에 나오게 하고

근근히 모은 돈
학교건설에 고스란히 바친 로인
젊은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원한어린 지난날 이야기도 해주네...

어떤 힘이 머리 흰 이 로인에게 이처럼 끓는
열정과 즐기찬 생활을 주었던가. 그것은 아버지
수령님을 우러러모신 조국이 있다는 신념이었다.

시 《자장가》(윤정숙, 《문학예술》 64호)는 동
포들의 애국적인 감정을 섬세한 정서적조화로 채
색된 서정으로 절절히 노래 하고있다.

엄마도 어서어서
우리 말 배워
걸음마와 함께
배워주리라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자장자장 아기를 채우면서 아버지수령님의 뜻
을 마음속에 새겨가는 어머니, 엄마도 어서 우리
말 배워 아가의 걸음마와 함께 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배워주리라는 그 마음은 얼마나 소박하면서
도 진실하게 안겨오는가.

이러한 신념을 안은 동포들이기에 이역에 부는
바람 사납고 시련의 고비가 앞을 막아나서도 먼
곳의 자식들을 심려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존
귀하신 그 영상 우러러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
예를 빛내이며 투쟁의 보람, 삶의 기쁨을 한껏
느끼는것이다.

정녕 오늘의 재일조선동포들은 나라 잃은 백성
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민족의 태양, 주체의 해발이 따듯
이 비치고있으며 어머니조국의 품이 있다. 하기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지향이 있어 이역만리
타향에서도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주체의
기치따라 총련애국운동에 즐기차게 나서는것이
다.

시 《동포대야유희 좋아라》(오충공, 《문학예술》
65호)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자랑을 안고 기세
충천한 동포들의 단결된 모습이 힘있게 안겨와
가슴흐뭇하다.

이역땅에서 동포들의 생활에 언제나 서러운 일
만 번져졌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주국의 아름다
운 하늘이 있고 고향의 기쁨진 땅이 있어 민족의
영예가 솟구치는것이다. 하여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두가 동포대야유희장으로 펼쳐나서 민족의 단

합을 꽃으로 활짝 피우며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빛발을 노래하는것이다.

다마까역두 이모저모
일본사람들 신기한듯 황홀한듯
눈들만 말뚱말뚱 바래주는데
여보게들! 이게 우리 조선사람의 사는
본때라오.

얼마나 긍지높은 조선민족의 모습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단체
인 총련의 우리 동포들은 바로 이런 존엄있는 조
선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
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나서는 첫째
가는 과업입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이
성스러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즐기차게 투쟁
하고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시 형상에 박력있게
반영되고있다.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주체가 량적으로 많을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서도 다양하다는데 주목
이 간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조장해놓고 남녘땅을 생지
옥으로 만든 미제의 박정희피뢰도당에 대한 끝없
는 절규와 단죄, 반파쇼민주화투쟁에 대한 적극
적인 지지와 성원이 정론적인 기백, 날카로운 풍
자와 조소, 투사의 감정을 대변한 서정적주인공
의 지향 등을 통하여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특히 시사시조 《수출품》의 4편(허남기, 《문
학예술》 66호)과 세번에 걸쳐 련재된 정호수의
《령남시조》들에는 강한 정론성과 날카로운 조소,
추상같은 철추, 원썬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 등이
강하게 반영되었을뿐만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새로
운 시도를 보여주고있다.

어디서
시대에 뒤떨어진
독재자를 헐값으로
사겠다는 나라는
없는가

아아

남녘땅엔
앞으로 영구히
소용없는
제1급의 수출품이여!
(시사시초 《수출품》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팔다 못해 이제는 죽은 아이의 신장마저 팔아먹는 만고역적 박정희파쑈악당의 천주에 용서 못할 죄행을 날날이 발기놓고 시인은 박정희피뢰정권이야말로 영원히 소용없는 1급의 수출품이라고 날카롭게 조소하고 략인한다. 시인의 강한 정론적기백이 넘치는 풍자로 폭로하고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역도야말로 두 상전을 이고다니는 민족의 극악한 매국노이며 파쑈악당이다.

하기에 김지하를 비롯한 남조선의 량심있는 민주인사들과 시인들이 박정희피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길아닌 어려운 《길》(시사시초 《길》)을 갔다. 제아무리 파쑈의 무리들이 입에 칼을 물고 자유를 엮어 매다못해 이제는 웃음마저 막으려 하지만(시사시초 《웃음》) 분노와 항거는 더욱 치밀어올라 그것은 막을수없는 사태가 되어(시사시초 《사태》) 독재자를 쓸어버리고야말것이다.

《령남시초》는 남녘땅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의 표본으로 만들고 암흑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정희피뢰도당의 죄행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날날이 폭로단죄하고있다.

파쑈독재자를 반대하여 일떠섰던 분노한 마산, 이민선이 멀어져가며 피눈물로 혈육들이 리별하는 원한의 부산, 미일침략자들에 의하여 찢기우고 유린당한 포항, 실로 령남땅은 그 어디를 가나 황폐화되고 울분에 가득차있다.

분노를 깨물어 견디고 사는
비굴한 참을성은 버려야 해요
눈물을 흘리며 흘쩍이지 말고
거리에 나와서 통곡합시다.
승냥이의 뉘우침을 기다리지 말고
해불 쳐들고 사냥길에 나섭시다
(시 《그 녀성운 살아있습니다》, 문중렬, 《문학예술》 65호)

서울 명동교회당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며 박정희매국역도를 절규하던 그 녀성을 두고

시인은 자기의 걱정을 무르익힌다. 과연 그 녀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으며 자식들과 식구들은 어찌되었을가?

파쑈의 검은 무리가 살판치는 남녘땅에서 그 녀성의 아이들과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해 허기진 배를 그러쥐고있을 늙은 어머니의 정상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러나 그 녀성은 이 모든 불행을 근본적으로 가시는 길이 파쑈독재정권을 뒤엎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했기에 가정도 혈육도 생각지 않고 투쟁의 길에 나섰던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동정의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 불행을 덮찍운 승냥이-미제와 박정희파쑈무리를 때려잡는 사냥길에 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는것이다.

이렇듯 동정의 눈물만이 아니라 투쟁의 거리로 펼쳐나서겠다는 각오는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 또한 죽음도 두려움없이 투쟁의 길에 나서는 남녘투사들의 신념은 무엇이었던가.

시 《철창너머 눈이 내린다》(김학렬, 《문학예술》 63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서적으로 대답하고있다.

외로운 철창속의 설맞이가
어느새 익숙된 이 몸
무쇠된 마음우에도
고요한 사색의 눈은
그지없이 쌓이고 또 쌓이건만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편단심
충성의 이 걱정은 마냥
불덩이같이 달아오르만 하고...

바로 이것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편단심! 이 충성의 신념이 그 어떤 파쑈의 총칼도, 철창도 단두대도 가림없이 조국통일의 결전으로 펼쳐나서게 하는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실로 재일조선인작가들은 3분의 1세기동안이나 갈라져있는 분열된 민족의 비극을 가시기 위하여 이처럼 필봉을 높이 들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기어코 실현하고야말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시가의 총창도 드높이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이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교원혁명가의 영예

-중편소설 《종소리》를 읽고-

신정옥

중편소설 《종소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특히는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인 사범대학학생들의 가슴가슴에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애독되고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지난날 무지와 문맹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 전반적무교육제도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를 비롯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세워주시려고 그토록 배려하여 오신 아버지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거이 체득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가 작품전반에 반영되어있는 중편소설 《종소리》는 주인공인 한 젊은 녀교원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길에서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 되어가는가를 매우 실감있게 형상화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중편소설 《종소리》는 소시민적인 사고방식에 물젖어 변화한 도시생활만 바라던 주인공 한재숙교원이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과정을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적세부들을 통하여 밝히고있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 재숙교원과 그의 남편 경찰이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락천적인 기백과 극성으로 충만된 예술적형상은 아버지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편소설은 첫부분에서 도시생활에서만 삶의 희열을 느낄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서 궁벽한 산간마을 천갑동 자그마한 분교에서 교편을 잡게되는것을 맞가지지 않게 여기는 극히 소극적인 재숙교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첫부분에서는 낡은 사상의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조건만 타발하던 주인공이 점차적으로 사상의식을 높

여나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선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면 군에서 일하고 자기는 읍학교의 정규교사에서 후대들을 가르치게 될 희망에 넘쳐있던 주인공은 하늘아래 첫동네로 남편이 자원해가자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한재숙교원은 제대군인인 남편의 신념과 리상을 리해할수 없었고 다만 남편이 너무 소박하고 고지식하기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작품은 부부간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을 보다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작품은 또한 하늘아래 첫동네로 불리우는 천갑동분교에 간 주인공이 새출발을 앞두고 일어나는 심리적굴곡을 생동하게 그리었습니다. 모든것이 불충분한 산간지대 농촌마을의 자그마한 분교를 돌아볼 때 재숙교원은 허전한 생각으로 울적해집니다. 더우기 축산반장으로 일하고있는 남편인 경찰이의 기쁨과 환희를 함께 느낄줄을 모릅니다. 소설은 이러한 극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재숙의 소심성을 경찰의 성격과 대조하고있습니다.

작품은 재숙의 심리적움직임을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었는데 특히 집뜨락에 능금나무를 심으며 그들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여실히 드러내고있습니다.

《어린 능금나무엔 꽃도 피지 않는데 그건 심어서 뭘하나요?》

《하참, 어린 능금나무엔 꽃이 안피지만 크게 자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니 더 좋지 않소. 우리도 이렇게 능금나무를 심어 키워서 먼 후날 우리의 아들딸들이 제 동무들과 함께 모여와 부모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따먹도록 해줘야 하잖겠소?》

재숙의 물음에 대한 경찰의 대답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관이 넘쳐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남편의 속심을 알리 없었던 주인공의 솔직한 감정은 그의 속대사에서 잘 표현되었습니다. (아-니 저이는 이 고장에서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살아갈 결심이란말인가?) 작품은 여기서 소시민적인 감정에 휩싸여 들끓는 도시생활만 바라던 재숙교원이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생활적계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재숙은 안일한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았으며 이때부터 그의 안온한 생각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작품은 제4장부터 재숙교원이 새출발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은 주인공이 어떠한 생활과정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하는 새형의 교원혁명으로 성숙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타개할수 있는 길이라만 자기 몸을 고스란히 바칠줄 아는 진정한 교원혁명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교육전사로서의 고상한 품모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참으로 감명깊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미제원썹들에게 의하여 불구가 된 폭포수 옷마를 목수할아버지네 손자를 보고 재숙교원은 어버이수령님의 전사답게 지조를 지켜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유자녀들을 역세게 키우리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재숙교원은 민청위원장을 찾아가 수시로 과업을 받고 그 집행을 위해 정열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학교설비가 개건확장되었을뿐만아니라 상도의 학습열의가 높아지고 민청원들의 노래소리가 온 골안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궁벽하고 한적하게만 느껴졌던 이 천감동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속에서 재숙교원은 차츰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며 변혁과 창조의 기쁨속에 생활을 개척해나아가는 시대정신을 체현합니다.

재숙교원은 개학후 처음으로 맞은 일요일에도 상도를 찾아가 글도 가르치고 희망의 나래도 펼쳐줍니다. 이날 상도가 환상의 나래를 펴가며 그런 한장의 그림, 이것은 실로 재숙교원으로 하여금 커다란 충동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재숙교원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며 교육자된 립장에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혁명의 후비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 같은 사랑의 천만분의 일만큼이라도 내가 상도를 사랑한다면 오늘의 환경에서 상도를 공부시킬 방법이야 어찌 없겠는가!) 그 이튿날부터 그는 불구인 상도를 3학년에 편입시키고 비바람 사나운 여름날이나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겨울날이나 빠짐없이 엮고 학교에 출퇴근하였습니다. 작품은 젊은 녀교원이 산간마을의 교육사업에서 변혁을 일으켜 혁명의 후비대를 보다 역세게 키워나가게 된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라는것을 박력있게 형상화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외진 산간마을 분교를 찾으시여

영원히 잇을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별로 한일도 없는 한 녀교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을 때 재숙교원은 드높은 긍지에 차넘치게 되며 감격에 목이 메이는것을 어찌할수 없어 뜨거운 눈물로 불을 적시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재숙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은 우리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낼 중대한 임무를 바로 동무들, 교원들에게 맡겼소. 때문에 교원이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내며 학부형들도 교양하는 혁명가들이요.》

몸소 두메산골에 있는 천감동분교를 찾으시여 학생교육교양사업형편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는 더없는 믿음을 안겨주시니 재숙교원의 감격은 끝없는 격정으로 설레입니다.

재숙교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시였던 영광의 땅 천감동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울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영원무궁토록 받들어 억년드높지 않고 두메산골 천감동에서 조국의 미래를 역세게 키워나갈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재숙교원의 혁명초소야말로 주체시대의 교육전사들이 드팀없이 서있어야 할 자기 위치입니다.

새세대들의 찬란한 미래를 선언하는 희망의 종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끝없이, 끝없이 메아리치게 하는 중편소설 《종소리》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소설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육정책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충성의 한길에서 작품의 주인공 한 재숙교원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산간벽지와 외진섬마을에도 서슴없이 달려나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겠다는것을 굳게 굳게 결의하게 됩니다.

(천리마김종태사범대학 국어문학학부 국문과 3학년 학생)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원산제1사범대학에서 잡지 《조선문학》 독자모임 진행-

오늘 잡지 《조선문학》앞에는 날고 심화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그 사상예술성을 훨씬 높이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문학잡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잡지 《조선문학》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편집출판사업에서 당성과 대중성, 인민성을 백방으로 발양하고 광범한 독자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출판물에서 당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그 대중성과 인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음으로써 출판물들의 진실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

잡지 《조선문학》편집출판사업에 광범한 독자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얼마전에 원산제1사범대학에서는 잡지 《조선문학》독자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걸려있었다.

모임에서는 시안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원들과 학생들, 문학동원선들과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며 합평회를 널리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원산제1사범대학강좌장 양삼집이 해설한데 뒤이어 《잡지<조선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문예정책의 열렬한 해설선전자이며 적극적인 옹호관철자이다》라는 제목으로 원산제1사범대학 교원 천광익이 토론하였다.

이어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되는 소설문학에 대하여 원산제1사범대학 학생들인 김복기, 리영옥이, 시문학에 대하여 원산제2사범대학 교원 리경준 원산대학 교원 조창록, 원산제1사범대학 학생 리옥실이 토론하였다.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되는 문학리론물에 대하여 원산제1사범대학 학생 황부원, 광석인민학교 교원 한명옥, 원산제2사범대학 교원 정희준이 토론하였다.

모임에서는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되는 작품

들과 문예론설, 편집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을 더욱 훌륭히!

독자들은 토론에서 잡지 《조선문학》이 새로 나오면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작품부터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매달 잡지 《조선문학》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뵈옵고싶고 자나깨나 항상 흠모하여 마지않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소설을 찾게 될 때가 제일 기쁘다.

지난기간 잡지 《조선문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소설을 적지않게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창작발표된 이 작품들은 우리 독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혁명문학발전을 크게 추동하고있다.

그러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을 더욱 훌륭히, 더 많이 내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독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소설을 잡지 《조선문학》매호마다에서 보게 될것을 간절히 바란다.

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이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도록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최상의 높이에 이른 혁명작품의 본보기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소설을 통하여서도 독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진리성,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하게 체득하게 될것을 바란다.

그러자면 작품의 회상실기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며 철학성이 높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전히 통일되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온 세상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

에서 우리나라오는 글을 쓴다면 그런 작품이 어찌 사상에술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이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독자모임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노래한 충성의 송가 작품을 많이 보여줄데 대한 문제도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제이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잡지 《조선문학》이 당문제정책을 열렬한 해설선전자, 옹호관철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할것이라고 토론하였다.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될수 있는 주인공의 형상을 더 많이!

독자들은 《조선문학》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으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단편소설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단편소설들은 독자들의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잡지 《조선문학》금년호들에 발표된 《미래를 위한 초소》, 《떠나는 사람》, 《발걸음》, 《미더운 세대》의 주인공들은 참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단편소설 《미래를 위한 초소》는 단 이틀동안의 병원생활을 취급하고있는데 교원주인공의 성격의 전모가 드러나게 그리고있다. 작품은 자그마한 이야기를 취급하고있지만 그것을 인물들의 성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문학적인 이야기로 꾸려놓았기때문에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소설은 병원생활을 취급하면서 들어갔기에 보건부문일군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인가 했는데 다 읽고보니 교원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이었다. 작품은 첫페이지부터 뻘드름하지 않고 직선적이 아니어서 흥미를 끌었다.

30명 학생들과 나눈 약속을 조국의 미래와 나눈 약속으로 여기고 끝까지 책임적으로 지키는 교원 주인공의 모습은 교육부문일군들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와 함께 한당대 살기라도 할것처럼 정성껏 진료소를 꾸리며 약초밭을 가꾸고 약초분포지도 작성하여서는 그것을 서슴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책임성높은 《떠나는 사람》의 주인공은 얼마나 매혹적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두시간이면 되기도 남을 사업인계가 주인공 정옥에게는 온 하루 걸리고도

모자랐다. 그는 진료소의 약품과 의료기구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관여해온 모든것을 인계하려 들었던것이다. 굴진소대 아무개는 기관지가 나쁜데 일할 때 마스크를 잘하지 않으며 공무소대 아무개는 관절염이 심하나 치료에 게으르다는 등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물론 예방치료사업에서 참작해야 할 그들의 성격과 습성, 기질에 이르기까지 다 말해주는 주인공처녀의 모습은 얼마나 기특한가. 다른데로 소환되어가면서도 굴안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 술가지를 꺾어다 꽂은 문제, 술잎시럽과 영양제 공급문제 등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것이라면 놓치지 않고 죄다 인계해준 진옥이는 그러고도 부족해 약초밭 꾸리는 문제같은것은 래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자는것이였다.

그리고 한 할머니에게 농아주어야 할 몇대의 주사를 두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 알려주는 진옥의 소행은 주체의 교육을 받은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10년전에 측량에서 범한 오류를 두고 뼈아픈 가책을 느끼는 《발걸음》의 주인공도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독자들은 단편소설들의 사상에술적질을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일데 대한 의견들도 말하였다.

우리의 단편소설은 철저하게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를 종자로 잡고 그것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꽃피워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문학적인 이야기를 더 잘 꾸리고 생활세부에 대한 묘사에서도 분석의 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리고 언어문제와 대사를 쓰는데서도 우리 시대의 미감에 맞게 더욱 혁신을 일으키며 작품의 양상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짧고 외우기 쉬운 주옥같은 서정시를!

독자모임에서는 서정시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되였다.

독자들은 금년 2호에 발표된 《창밖에 비가 와도,눈이 내려도》를 비롯하여 《조국땅우에 밝은 길어가도》,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 등 시들이 서점도 있고 시인의 얼굴도 엿보이는 좋은 시들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좋은 시들은 몇줄 읽으면 따로의외우고싶고 몇번 읽으면 저절로 따로의워진다.

한번 읽어서는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몇 번 곱씹어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알수 있는 모호하고 허황한 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한번 읽는가운데 저절로 생활화폭이 련상되는 시, 요란한 웨침이나 과장이 없이 소박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시, 이런 시라야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독자들은 또한 시를 짧고 쉽게 쓸데 대한 문제, 류사성을 극복하고 개성과 양상을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그리하여 시가 광범한 독자대중들속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문학으로 되며 시와 생활, 노동과 시가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문예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자들은 잡지 《조선문학》이 당문예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더하는데서 문학리론사업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잡지 《조선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문예정책을 해설선전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매시기 새롭게 제기되는 문예방침을 제때에 소개하고 그 관철으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머리글과 론설들, 우리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만들기 위한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벌리는 지상토론들은 잡지 《조선문학》으로 하여금 선도자적역할을 하게 하는데서 큰 힘으로 되었다.

특히 혁명적장편소설들인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과 《평양시간》, 《갑오농민전쟁》(1부)이 거둔 성과를 해설선전하는 론설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독자들은 간결하면서도 통속적으로 된 지상토론을 앞으로 많이 벌리되 문제를 넣어놓지 말고 매 호마다 한문제씩 또는 한작품씩 집중적으

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그 사상예술적성과와 의의를 제때에 집중적으로 해설선전하며 문학론설의 미학성을 높여주면 좋겠다. 작품의 성과를 선전할 때에는 먼저 종자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상언어문제에 이르기까지 해부학적으로 분석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종자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작품창작의 중심고리로 될뿐아니라 작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서도 중심고리로 되기때문이다.

작품의 사상적핵인 종자를 분석하지 않고 작품내용을 일반적으로 해설하는데 그친 론설은 독자들에게 실속있는 도움을 줄수 없다.

독자모임에서는 이밖에도 우수한 작품을 쓴 작가들의 창작경험을 발표해줄데 대한 문제, 새로 자라난 작가들과 함께 독자들속에서 사랑받는 이름있는 오랜 작가들이 잡지 《조선문학》에 적극 등장할데 대한 문제, 단편소설과 함께 시문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상토론을 벌릴데 대한 문제, 수필, 기행문, 실화의 문학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작품의 제목을 생동하고 아담하게, 읽고싶은 마음이 들게 달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토론되었다. 또한 혁명문학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뿐아니라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문학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적후과를 폭로분쇄하는 평론사업을 적극 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모임에서는 끝으로 잡지 《조선문학》편집부에서 주체문학발전과 잡지 《조선문학》편집사업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잡지편집을 항일유격대식으로 개선하며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잡지가 독자대중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문예정책을 더욱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훨씬 높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할 결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본사기자

주체형의 로동계급의 빛나는 형상

배준구

중편소설 《불바람》(리종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받들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혁신을 창조하는 제철소 건설부문 연공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묘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필연적요구로부터 대야금기지건설에 힘을 넣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기간부문의 구조물을 본격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과 크나큰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주인공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가는 야금기지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구조물건설을 빠른 속도로 완공해나간다.

야금기지건설에서 발현되고있는 이러한 영웅적 위훈과 자랑찬 성과의 밑바닥에는 야금기지건설을 구상하시고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로고가 놓여있다는것을 중편소설은 주인공들의 생활과 로력투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첫째페이지에서는 야금기지건설장의 평범하고 인상깊은 작은 철집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한다.

이 철집은 야금기지건설을 빨리 다그치려는 연공들의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하여 더욱 세차게 들끓는다. 여기에서 작품의 주인공 박진수는 군대생활의 배낭을 풀고 작업반장 리호섭을 비롯한 엄인섭, 강충길, 오영목, 서금단, 신운갑을 알게 되며 직장장 최병하와 김하진도 만나게 된다.

박진수는 로동의 첫발자국을 내디딘 야금기지건설장에서 140톤 전로지지가락지를 설치하고 550톤의 중량을 가진 초대형 탐식기중기를 옮기는거창하고 보람찬 일에 착수한다. 그는 이 건설공사의 기일을 앞당기는것이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새로운 건설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줄기찬 로력투쟁을 벌린다.

소설은 야금기지건설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주인공 박진수의 생활과 투쟁을 주선으로 하여 그리는 한편 이 장엄한 투쟁대오에서 작업반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밀고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작업반장 리호섭과 작업반의 주인이 되어 건설공사를 보살펴주기도 하고 힘든 고리를 풀어주기도 하는 오랜 연공 엄인섭의 형상도 감동적으

로 그려내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첫 로동생활의 부족점을 깊이 깨닫고 전로지지가락지설치와 기중기 옮기는 일에 자신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깡그리 바쳐나가는 강충길, 오염목의 자랑찬 모습과 자기의 육체적생명을 아낌없이 이 보람찬 건설공사에 바칠것을 결심하고 용약 어렵고 힘든 일에 뛰어드는 서금단의 미더운 모습도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소설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인물의 형상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면서 부정과의 투쟁선도 보여주고있다.

보수주의자이며 기술신비주의자인 직장장 최병하와 기술공정원 김하진은 건설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리호섭작업반원들의 새로운 창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작업을 낡은 방법으로 밀고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있던 낡은 사상과 사업작풍은 속도전의 불바람속에서 개조된다.

소설은 거창한 건설현장에서 진행되고있는 이야기들을 그려내고있지만 그것이 건설기술공정의 지루한 설명으로 되지 않고있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흑색야금기지건설에 펼쳐나선 영웅적로동계급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혁명임무 수행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헌신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담보할수 있게 한 요인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여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들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맑스-레닌주의적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생산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며 위대한 생활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그러므로 문학은 마땅히 생산과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람들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려야 한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전로지지가락지를 설치하고 기중기를 옮기는 이야기를 전개하고있지만 작품에서는 시종일관하게 생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이렇게 소설은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진지하게 파고들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신없는 충실성에 있다는 진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나가는 주체시대의 자주적인간의 거대한 힘과 역할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소설의 주인공 박진수의 성격창조에서 더욱 생동하게 느껴지게 된다.

박진수의 성격적특질은 초소의 병사생활에서 그리고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툼툼 단련되고 공고화되었다.그러기에 그는 오직 아버지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사업을 힘있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간다.

그는 야금기지건설날자를 최대한으로 앞당기는 여기에 우리 로동계급의 보람이 있다는 혁명적자각을 지니고 건설의 속도를 다그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내오며 그것을 방해하는 보수주의자들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린다.

그의 이러한 성격적품모는 다음과 같은 세부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심장을 조이며 전로지지가락지를 떨어리는것을 보는 순간 기증기의 쇠바줄이 튕겨나오는 위기일발의 위험이 닥쳐온다.

고함소리, 웨침소리가 나는 위험한 정황속에서 박진수는 《당원동무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30메터나 되는 높이의 아찔한 공중에 수평으로 떠있는 천정기증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 위험한 정황을 처리한다. 또한 그는 기증기 옮기는 작업에서 5개월반이 걸려야 한다는 낡은 공청능력을 깃부서버리고 불과 1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해내고야마는 기적을 창조한다. 박진수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어떤 난관이 부닥쳐도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을뿐아니라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충실성의 구감으로 형상되었다.

소설의 주인공 박진수는 집단적기술혁신의 앞장에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할뿐만아니라 혁명동지를 진심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는 공산주의적혁명가로서 훌륭히 성격화되었다.

그는 작업반장 사업을 적극 떠맡어주기도 하고 작업반원들의 사업과 생활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세포비서로, 연공로동자로 언제나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직한다.

주인공 박진수는 작업반에서 자유주의적으로 리탈한 오염목의 로동보호물자를 기어이 타내오며 그를 찾아 온 건설장을 해매다닌다.

혁명동지에 대한 박진수의 뜨거운 사랑과 포옹에 진심으로 감동된 작업반청년들인 오염목, 강

충길은 자신의 부족점들을 진심으로 깨닫고 야금기지건설의 보람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켜나간다.

이와 함께 중편소설에서는 당일군 김세운의 성격형상도 나무랄데 없이 강조되었다.

당비서인 김세운의 형상은 작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일군으로서 그의 사상정신품모는 강한 인상을 주고있다. 이것은 당일군의 형상을 작품의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밀착시켜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주체적과제해결의 가장 적중한 대목에서 옳게 파고들었기때문이다.

김세운은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제때에 깊이 심어주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특히 그는 연공작업반의 세포비서인 주인공 박진수를 당직원칙으로 교양하고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적극 떠맡어준다.

또한 그는 로동계급의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발양시켜주고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긴장된 일이 제기되면 언제나 자신이 몸소 앞장선다. 그런가 하면 그는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옳고 그른것을 제때에 정확히 판단하여 부정을 교양개조하고 긍정을 적극 내세워준다.

사업과 생활의 실천행동속에서 보여준 당일군 김세운의 성격형상은 인간성과 정치성을 풍부하게 겸비한 당적인 인간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소설에서는 박진수와 김세운의 성격과 함께 오랜 로동계급의 전형인 엄인섭의 성격적특징도 인상깊게 그려내고있다.

엄인섭은 작업반에서 제일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오랜 연공이다. 그는 해방직후 나라의 흑색야금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직접 받은 로동계급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영광을 지닌 엄인섭은 언제나 작업반의 젊은 세대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의도를 하나하나 알려주며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그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작업반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주고 작업반의 막힌 고리를 풀어준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에서 뜨겁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한, 우리 시대 로동계급만이 지닐수 있는 고결한 품성의 소유자이다. 그러기에 그는 직장장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작풍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강충길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부족점을 엄격히 추궁도 하고 따듯이 타일러주기도 하여 그들모두가 야금기지건설에서 높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한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주인공 박진수를 비롯한

김윤길, 엄인섭 등 로동계급의 전형을 훌륭히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강충길, 오영목, 서금단 등 젊은 세대들의 혁명화과정도 인상깊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지원하여온 청년들이다.

강충길은 말과 실천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부족점을 가지고있지만 새것에 민감하기때문에 인차 자신의 결함을 뉘우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패기와 열정에 넘쳐 수행한다. 그런가 하면 오영목은 야금기지건설장으로 자원하여온후 집단과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방조로 자기가 범한 결함을 깊이 깨닫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말보다 실천행동으로 믿음직하게 수행한다. 특히 소설에서는 육체적생명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서금단의 높은 정신 세계와 영웅적행동을 기발하게 그려내고있다.

서금단의 영웅적성격은 초대형탑식기중기를 옮기는 위험한 순간에 발현되는 행동묘사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그는 한눈에 운전실을 휘둘러보고는 만약의 경우, 최악의 위기에서 무의식중에 뛰쳐나갈수 있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버리기 위하여 문을 걸어버렸다.

삶도, 죽음도 연공들과 함께 하려는 처녀의 단호한 결심이 내려지는 소리인듯 문결개가<철컹!>하고 날카로운 쇠소리를 내며 걸렸다.》

청춘도 생명도 혁명에 아낌없이 바치려는 새세대 서금단의 높은 정신적각오와 결심이 그대로 독자들의 심장을 파고든다. 바로 이런 감동적인 생활장면의 묘사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맥박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성격적특징을 참으로 깊이있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한편 소설은 낡은 사상과 사업작품을 가진 최병화가 속도전의 힘찬 전진속에서 교양되고 개조되어가는 과정도 그려내고있다.

주체교육의 전당에서 청춘의 리상을 불태우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로동현장에 내려온 초기에는 일을 잘하였다. 그러던 그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으로 되면서부터 점차 로동계급의 새로운 발기와 창안을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대로 보수주의적으로 집행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인물을 통하여 작품은 아무리 일을 잘하던 사람일지라도 혁명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고 한시라도 중단한다면 쉽게 변질할수가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또한 작품은 사회주의대건설장이 다만 경제건

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곳일뿐만아니라 사람들을 부단히 혁명화하여 그들모두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인간개조의 마당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사회주의대건설현장과 기계설비조립 등 기술공정들을 취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생활이 있고 량만과 서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풍부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기본요구이다.

중편소설 《불바람》이 오늘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우리 영웅적로동계급의 생활을 풍부하고 생동하게 그려낸데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징을 단순히 외곽으로만 파고든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생동하게 개성화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야금기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건설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을 기본 주선으로 하여 새것과 낡은것과의 인간관계가 설정되어있고 그에 따르는 각이한 인간들의 사색과 심리적움직임이 풍부한 생활로 그려지고있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실무적인 건설공정을 보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인간생활을 보게 되며 도식화된 인간성격이 아니라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들의 풍부한 생활과 내면세계를 보게 된다.

작품의 주인공 박진수를 비롯한 긍정적인물들이 지니고있는 성격적특질속에는 한결같이 주체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생활의 맥박이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그들은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으로 해내고야마는 불타는 충성심을 지니고있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방침을 힘있게 관철해나가는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생활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그려낸 훌륭한 작품이다.

소설이 거두고있는 이러한 성과들로 하여 작품은 사회주의대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생동하고 매혹적인 성격을!

한명옥

단편소설 《미래를 위한 초소》(《조선문학》 1978, 1, 정성훈)는 읽은지가 몇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형상이 나의 머리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 작품은 교원인 나에게 실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 작품을 나 혼자만 읽을수 없어 우리 교원들앞에서 읽어주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미래를 위한 초소》의 주인공 철호는 교편을 잡은지 2년밖에 안되는 신입교원이지만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진 교원혁명가답게 교수사업은 물론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지도하고있는것인가. 그는 무리한끝에 오는 병으로 하여 병원침대에 눕게 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한후에는 다시 학생들의 과외생활과 과외학습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여념이 없다.

호실환자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침대우에 앉아 학생들이 쓴 글 한자를 보고도 그 학생의 성격과 취미를 알아내는 철호교원, 숲속에서 학생들에게 배워줄 시작품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엽서같은 종이장들에 응용문제를 풀어보기도 하면서 귀엽고 명리하고 정직하고 장난이 심한 때 학생들의 개성적인 성격과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앞에 그려보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심중한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철호교원.

그는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

장으로 체득하였기에 한밤중에도 병원의 침대우에서 사랑에 넘쳐, 기쁨에 넘쳐 과외생활과 학습준비를 그처럼 성실히 하는것이다.

주인공 철호는 학생들과 한 약속을 리행하기 위하여 입원한 다음날로 퇴원하겠다고 간절히 제기한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휴식하고 다음날 나가 학생들과의 약속을 실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병원과장에게 《이건 보통약속이 아닙니다. 조국의 미래와 나눈 약속이 아닙니까!》고 말하는 철호교원, 30명의 학급학생들과 일요일에 야외관찰을 나가기로 한 약속, 이것을 조국의 미래와 나눈 어길수 없는 약속으로 여기는 철호교원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것이다. 2일간의 짧은 병원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철호교원이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충성의 시간이 얼마나 값높게 흘러가는것인가를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어린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담임선생을 찾아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숲속을 찾아떠나는 장면은 눈물이 겹도록 감동적이며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형상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을 하겠다는 아들을 식료상사 지도원으로 넣은 구역상업과장과의 성격적대조속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 교원들의 생활과 사업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이 작품은 매수는 매우 짧으나 읽고난 뒤의 여운은 참으로 긴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짧으면서도 흥미있고 생동한 단편소설을 많이 실어줄것을 편집부에 부탁한다. 주인공의 형상을 두고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며 실패투쟁의 무기로 삼을수 있는 실감있는 성격을 독자들은 사랑한다.

(필자 원산시 광석인민학교 교원)